

○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 2023.4.18.(화) 14:00
- 장 소 |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5층)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정토론회 개요 및 흐름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3. 4. 18.(화) 14:00
- 장 소 :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5층)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주 제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4:00~14:10	10' 개 회 및 국 민 의 례	사회 :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14:10~14:20	10' 내 빈 소개 및 개 회 사	홍성현 부의장
〈 토 론 회 〉 ※ 좌장 : 홍성현 부의장		
14:20~14:45	25' 주 제 발 표	발제자 : 김연중 교장
14:45~15:30	45' 지 정 토 론	토론자 3명(각 15분)
15:30~15:50	20' 자 유 토 론	발제자, 토론자, 방청객 등
15:50~16:00	10' 정 리 및 폐 회	좌 장(홍성현 부의장)

목 차

■ 주제발표

-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언 : 중학교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3
김언중(천안여자중학교 교장)

■ 지정토론

-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충남 인성교육 추진 및 정책 방향:
학생지원팀 업무 중심으로 17
오황균(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 ☞ 행복한 교실, 즐거운 수업 만들기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모색 41
신상원(천안병천중학교 교사)
- ☞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통한 긍정적인 학습환경 조성 61
임재희(천안불무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의 정 토 론 회

주제발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언

(중학교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김 언 중

(천안여자중학교 교장)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언

(중학교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김언중(천안여자중학교 교장)

I. 학교 교육의 위기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흥성사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예견된 사태라는 자조적인 시각들이 지배적이다. 하나의 대형사건들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과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학생들의 충격적인 일탈행동에 뒤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탈 행동들이 이미 만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현장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동안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미봉책에 급급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지도할 때 마땅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학생들의 인권이 향상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를 악용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많은 교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오늘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의정토론이 학교현장에 만연된 학생들의 일탈행동과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공감대와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

2019년 조사에 의하면 충남 교사들 역대 최대 인원이 교단을 떠났다. 지난해 2월 명퇴 신청교사는 159명. 그런데 올해 2월 명퇴를 신청한 교사는 326명으로 한 해 동안 무려 9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6000명을 넘어서 지난해 4632명에 비해 30%나 증가했고 2017년 3652명보다는 65%나 늘어났다.

또한,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명퇴 신청자 중 70%가 55세 이상이다. 명퇴

사유는 여러 관점에서 해석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린 것도 있고 명퇴신청이 가능한 경력 20년 이상 교사들이 증가했다는 이유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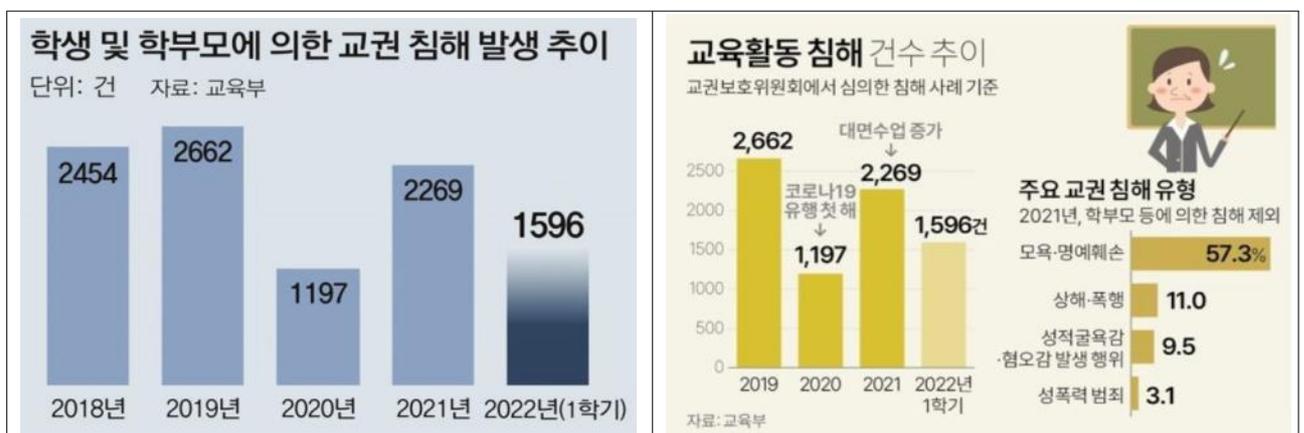
그러나 교육계는 교사들의 명퇴신청 사유로 교권 추락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월, 교권 추락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인터뷰에 응한 A 교사는 “나이 들어 경력이 많다’가 학교에선 나쁜 의미가 되더라. 경력이 많아 노련할 것 같아도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진다. 또 학교에 따라서 많게는 한 반에 2/3가 넘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함부로 한다. 학생들의 예의 없음이 일반화됐다. 나는 비교적 학교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학교생활도 즐겁게 한 편이고 학생들과 큰 충돌도 없었지만, 수업보다 아이들 지도에 더 힘을 빼게 돼 수업하기 싫을 때가 있었다. 마치 아이들에게 사정해서 수업하는 느낌이었다. 깊이 들어가 보니 학교생활이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맞는 거 같다”며 속내를 털어냈다.

※ 출처 : 천안아산신문(<http://www.canews.kr> 노준희 기자 2019년 발취)

2.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교원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총 2,269건이 발생했다. 올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국 교원 10명 중 6명은 하루에 한 번 이상 학생의 수업 방해·욕설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침해 사례는 2019년 2천662건이었다가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1천197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면수업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2021년 2천269건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학기에만 1천596건에 달했다.

▶ 2022학년도 학교급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된 학생들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사례

- 초등학교 216건
- 중학교 1천222건,
- 고등학교 803건 발생하였다.

※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 2022학년도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남녀 4천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여론조사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44.5%이었다. 그 원인으로는

- 학생 인권이 지나친 강조(36.2%),
-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26.2%),
-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부족(17.5%) 순으로 꼽혔다.

3. 학교 내에서의 학업중단이 심각하다.

많은 교육전문가 들은 학업중단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이 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미 학교 안에 학업중단이 더 심각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 오래전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 640만명 중 300만명 이상이 잠재적 학업중단 상태라 파악한 적이 있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 잠을 자는 학생이 일상화 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의 태도를 바로 잡으려하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들 학생들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수업을 망치거나 봉변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 제도하에서 이를 지도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Ⅱ.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

1. 수업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학생들의 성실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있다면 출결사항이다. 학년이 끝나거나 졸업식에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 개근상이다. 학교에 빠짐없이 나오는 학생이라면 다른 것은 볼 것 없이 성실성과 인성은 보장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심지어 공로가 많은 학생도 출결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학교내규로 공로상에 배제하고 있다.(본교규정: 당해 학년에 미인정결석 3일 이상일 경우 공로상에 배제,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3회를 결석 1회로 간주) 이는 미인정결석을 하는 학생이라면 자기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로상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핵심은 수업이다. 수업은 단지 교과의 성취도를 통해 잠재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민주시민의 소양, 사회성 등 학생들의 가치관이 수업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의 질이 학생들의 인생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 수업에 임하는 선생님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갈수록 수업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현상이 명퇴하는 선생님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이러한 현상은 심각하다.

가. 현행 출결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

(1) 현행 출결관리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동법 제50조
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 훈령 제8조(출결상황)
※ 2022학년도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2쪽~70쪽

현 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1년간 190일 이상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유급은 수업 일수의 2/3을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수업일수를

190일로 따져 보았을 때 127일을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 즉, 190일 수업 일을 기준으로 63일 이상을 결석하면 유급 처리가 된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수업 일을 190일~195일 사이에서 정하고 있다.

(2) 현재 적용하고 있는 출결 규정

▶ 결석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미인정(무단), 병결, 경조사, 공결, 가타 결석 등이 있다.

※ 유급처리에 해당하는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결석(수업일수 190일 기준 63일 이상 결석)의 경우는 미인정(무단)과 병결을 포함한 일수이다.

※ 미인정(무단)결석 사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중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중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지각, 조퇴, 결과

가. 지각: 정해진 등교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을 때.

나. 조퇴: 정해진 등교시간과 하교시간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는 매시간 적용

- 수업시간 중 5~10분을 초과하여 입실한 경우
- 5~10분 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모든 학교는 자체적으로 학칙으로 결과 기준을 5~10분으로 결정함

현행 출결관리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출결관리를 단순히 의무교육 하의 출결관리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불가피한 경우(질병,

가족경조사, 공적사항)를 제외하고 학교에 빠짐없이 나오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풍토로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기본이 질서 있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엄격한 출결관리 적용이 학교교육 정상화의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3) 현행 출결관리 규정의 문제점

2000년대 초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개근(정근)상 폐지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때의 사회적 분위기의 편승해서 학교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디테일한 고려 없이 현재의 출결관리가 제도화됨으로써 교육정상화를 저해하는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었다.

▶ 독소조항

- 유급제도가 학생들의 자기 관리에 매우 유효한 제도지만 현행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결석(수업일수 190일 경우 63일 이상 결석)시 적용되는 유급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임
- 190일 출석일 중 190일 지각을 해도 이를 예방할 수 없는 지도방안이 없음(각급 학교에서 생활규정에 명시해서 선도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됨)
- 하루 수업 7교시 중 6회 무단으로 결과를 해도 나이스 상에만 6회 입력될 뿐 실제 생활기록부상에는 1회로만 기록됨
- 같은 날에 동일 학생이 무단 지각·결과·조퇴를 해도 학교에서는 출결 규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한 가지만 적용

무단으로 지각, 결과, 조퇴가 상시 반복되고 누적되어도 현 제도하에서는 근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예) 동일학생이 190일 출석일수 중 100일 동안 매일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를 각각 했다고 가정해도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100회의 누적된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하지만 출석일수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음(과거에는 3회 누적되면 결석1일로 적용)

(4) 현행 출결 규정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행 사례

▶ 무단 지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행

- 학교 부적응학생(문제 학생 포함)의 경우 상습적으로 지각 발생
- 학교 오고 싶은 시간에 등교하게 되고, 수업 중 교실에 입실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다수 사례 발생

- 상습지각 학생에 대해 부모교육 등으로 선도를 해도 실효성이 없음

예) 2022학년도 전교생 600여명의 중규모학교 1년 지각학생 현황 파악

- 배움터 지킴이를 통해 월단위로 지각생을 파악하고 연말에 통계를 내보니 하루 평균40~50명의 지각학생 발생, 많은 날은 60명이 지각(코로나 이후 더 심각해짐)

▶ 무단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행

- 무단 결과 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수업 중 학교내 또는 학교 밖으로 이탈하여 흡연, 교통사고, 극단적인 선택, 민가 무단침입 피해 등 다양한 비행사례 발생
- 문제 학생들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결과를 하여 이탈 행동
- 해당 학생 학부모교육, 생활규정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법적 지도 대책이 없어 학교의 규정 및 질서가 무력화됨
- 무단결과 발생 시 사전에 부모에 연락했어도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가 모든 책임을 짐

▶ 무단 조퇴의 경우도 무단 결과와 비슷한 비행과 문제점 발생

▶ 비행에 취약한 출석 인정(결석으로 보지 않는 경우)

- 극단적인 경우 하루 일과 중 10분만 학교에 머물러도 출석 인정(결과로 인정되어 출석은 인정)
- 일부 학교는 수업은 참여하지 않고 담임교사 눈도장 찍고 점심만 먹고가도 출석인정

▶ 교사의 수업외 업무 가중

- 사고발생 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함으로 부모연락, 상담, 학생동향 파악 등 후속조치로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스트레스 증가

나. 수업 정상화를 위한 출결 규정의 개선

(1) 출결 상황을 상급학교 진학(고등학교)시 적용하는 성적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학년 진급 시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

▶ 고등학교 진학시 성적산출

- 전학년 출결상황을 토달하여 미인정(무단)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횡수를 합산하여 결석일수를 산출한다.(14점 만점)
- 미인정(무단) 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인정한다.

※ 제도가 정착되면 미인정(무단) 지각, 결과, 조퇴가 무한정 반복되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교육정상화에 기여. 즉 63일 이상 결석으로 유급에 해당하는 조항이 현실화되어 자기관리에 충실할 수 밖에 없는 여건 조성

(2) 상습적인 미인정(무단) 지각, 결과, 조퇴자에 대해 교권 침해로 조치

현 교권침해 유형 중 학생들에게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은 모욕, 폭행, 간섭, 협박, 명예훼손, 성적문제, 교육활동 부당한 간섭 등이 있으나 대부분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경우는 한 학교에 1년에 한두번 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심각한 것은 지속적으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해서 학교의 규정과 질서를 무력화하는 행위이다. 교권침해 유형에 명시해서 교사의 지도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현행 생활 규정으로는 선도 내지 징계는 전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함)

(3) 유급제도 현실화

현 출결관리는 한 학년 수업일수 190일 중 3분의1이상 결석(63일 이상)하지 않는다면 상급 학년에 진급할 수 있다. 문제는 결석 일수에 잡히지 않는 무단 지각, 결과, 조퇴가 학생들의 다양한 비행과 탈선 환경을 조장하여 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정규수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이지 못한 수업일수(190일) 중 3분의 1이상 결석(63일 이상)시 적용되는 유급 기준일을 45~50일로 대폭 낮추고 미인정(무단) 지각, 결과, 조퇴가 3회 이상일 경우 1일 결석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교육선진국에서는 엄격한 출결 관리 뿐만아니라 교과성적의 과락까지도 유급제도에 반영하고 있어 학교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

2.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정책 개선

가. 학업중단숙려제

(1) 학업중단숙려제 목적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 증진 도모
- 학업중단 위기 징후 학생의 조기 발견을 통한 상담 및 학업중단 사전 예방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다양한 숙려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급하게 이루어 지는 학업중단 예방
-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학업중단 발생 최소화

(2)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내용

- 기간: 최소 2주(14일) 이상 ~ 최대 7주(49일) 이하 운영(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포함)
 - ※ 부득이한 경우 학생·학교의 상황에 따라 1주 운영 가능
- 횟수: 당해 학년도 숙려제는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학기당 1회 권장)
- 출석: 주 2회(1회당 45분)만 참석하면 1주 출석인정

(3) 학업중단숙려제의 문제점

- ▶ 학업중단 숙려제는 주 2회(1회당 45분)만 출석하면 1주일 출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출석 일수 미달에 근접한 학생들이 유급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 예체능 학생의 실기 레슨을 받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도 있음
- ▶ 정규수업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출결관리의 부실을 조장
- ▶ 주 2회(1회당 45분) 출석 이외의 시간은 관리가 쉽지 않아 일탈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 ▶ 상담이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 효과성의 의문

(4) 학업중단속려제 개선방향

▶ 「학업회복속려제」로 명칭변경

의무교육하에 「학업중단속려제」는 모순이라는 생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학업회복속려제로 바꾸었으면 한다.

▶ 학업중단 속려제의 법적 의무화

속려대상 선정을 학교 선정위원회에 정하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

▶ 교육청 내 학업중단속려제 전문팀 구성

대상학생의 문제행동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종합적으로 접근

▶ 교육 기간의 현실화

정규시간처럼 운영할 수 없으나 주2회 출석으로는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교육기간을 현실화가 필요하다.

▶ 학생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전문팀의 구성을 진로, 공부방법, 인성, 심리상담,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교육

▶ 가정과의 연계지도 방법 모색

나.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의 내실화

(1) 운영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학업중단 위기학생,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의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이를 통해 학업중단 예방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대안교육 운영 현황(천안·아산)

▶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일일 3시간)

천안	몽상가의인직업전문학교(제과제빵)	아산	아산요리전문학원
	천안중앙직업전문학교(미용)		주식회사케이뷰티
	MBC아카데미뷰티학원		
	동천안희망직업전문학교(미용)		아산행복마을학교연합(바리스타,미용)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전일제)

기관명	대상학생	지역	인원	성별
청소년희망나비학교	위기학생	천안	20명 내외	남
다니엘기독교국제대안학교	위기학생	천안	10명 내외	남,여
협동조합청소년어울림	위기학생	아산	20명 내외	남,여
드림학교	탈북학생	천안	15명 내외	남,여
구세군아름드리/새소망의집	미 혼 모	천안	4명 내외	여

(3) 대안교육 직업위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정규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와 직업, 취미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어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각 지역마다 개설 기관이 한정되어 있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문제점

- 자발적으로 대안교육에 응하는 경우 극히 일부
-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으로 참여율 저조
- 1인 15,000원 교육청 지원이 가능하나 실기, 자격증 시험등 학생들의 부담이 별도라 경비 부담으로 참여율 저조

▶ 개선 방향

- 학생 흥미,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 힙합, 댄스, 의상, 실용음악, 드론, 율예, 반려동물 체험, 관광 등
-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실습비 상향

(4) 대안교육 위탁교육(전일제)

▶ 문제점

- 대부분의 전일제 위탁교육의 경우 위기학생 위주로 특화되어 있다.
- 대부분 기숙형으로 자유분방한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 학생관리의 문제로 소수의 학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개선방향

- 정규학교에서 지도불가 학생은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화가 필요
 - 덴마크 에프터스쿨을 벤치마킹한 학생진로형 다양한 대안 위탁교육 양성이 필요
- ※ 반려견, 승마, 관광, 예술
- 위기학생, 학교부적응을 포괄한 대안 위탁교육 개설이 시급
 - 공립 여해학교, 다사랑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학생희망에 따라 기숙형과 등·하교형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의 정 토론회

토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충남 인성교육 추진 및 정책 방향

(학생지원팀 업무 중심으로)

오 황 균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충남 인성교육 추진 및 정책 방향

(학생지원팀 업무 중심으로)

오항균(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I 들어가기

대한민국의 눈부신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면에는 학교교육의 밑바탕이 되어 인적 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라고 주장하는 교육학자와 사회학자가 있는가 하면 과도한 사교육 의존비율,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대학입시 위주의 초,중,고 학교교육(특히 중,고), 심리·정서적 고위기 학생비율의 지속적 증가, OECD자살율 1위인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학생의 행복지수와 학교 만족도의 낮은 평가로 공교육의 실패라는 비판과 지적을 받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학교교육=공교육”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공교육이란 국가 혹은 준(準)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와 지원에 의하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육제도’를 말한다(이돈희, 1994). 이는 ‘국가의 관리 및 지원’과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성과 평등성’의 두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무상성과 의무성을 추구하고, 교육내용에 있어서 중립성과 보편성을 추구하고, 국가가 교육의 질을 관리, 감독하는 학교제도 중심의 교육을 그 원리로 한다(김승연, 2007).

물론 민간인이 세운 사립학교가 많이 있지만 이들도 역시 교육과정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공교육은 사교육기관인 사립학교도 포함된다고 이해되고 있다.

1. 학교교육의 정의,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학교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에서 받는 교육을 가정 교육, 사회 교육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있다.

공교육의 현황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교육부 누리집-정책-교육통계 및 정보화 의 “한국의 교육지표 22” 통계 중에서 자료를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먼저 취학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98.4%), 중학교(97.9%), 고등학교(96.1%)였으며, 진학율은 초→중(100%), 중→고(99.7), 고→대(69.8%)로 나타나 매우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학업중단율의 전국적인 평균은 초(0.4%), 중(0.5%), 고(1.1%)로 나타났다.

충남의 초, 중학교는 전국평균 이하, 고교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중단율로 나타났다.

중·고교생의 학교교육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약간만족(34.1%), 매우만족(23.1%)이어서 약간만족 이상의 비율이 57.2%였으며, 학교에서의 교육방법 만족도를 살펴보면 약간만족(30.4%), 매우만족(18.5%)으로 나타나 약간 만족이상이 48.9%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2019년(국어: 4.1%, 수학:11.8%, 영어:3.3%)⇒2021년(국어: 6.0%, 수학:11.6%, 영어: 5.9%)로 증가했으며, (고등학교 2학년): 2019년(국어: 4.0%, 수학:9.0%, 영어3.6%)⇒2021년(국어: 7.1%, 수학: 14.2%, 영어:9.8%)로 증가하였다.

OECD 영역별 학업성취도 평균 점수 비교(2018, 한국 : OECD 평균)

읽기(한국: 514, OECD: 487.1), 수학(한국: 525.9, OECD: 489.3), 과학(한국: 519.0, OECD: 488.7)로 한국이 모든 영역에서 월등한 학업성취를 나타냈다.

컴퓨터 정보소양 및 컴퓨팅 사고력 평가 척도 점수 및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2018)에서 도 컴퓨팅 사고력(536점, 1위), 컴퓨터 정보·소양면(2위)⇒(덴마크, 핀란드 등 8개국 비교)

중·고교생의 교사와의 관계만족도(약간만족 이상 응답비율은 2018년(61.1%)⇒2020년(64.8%)로 나타나 교사와의 관계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선생님은 학생들의 공부를 돕는다. 한국: 87.0%, OECD: 75.6%), 교사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인식(선생님은 나를 이해하고 계신다고 느꼈다. 한국: 76.6%, OECD: 70.1%)로 나타나 한국과 OECD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공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학생, 학부모, 교원, 사회구조적인 요인 등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내용을 몇 가지 제시해 본다.

가. 상위권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 학교교육의 고착화(인성교육의 소홀)

나. 사교육 의존도의 심화와 지속화(보완재가 아닌 대체재로서의 사교육 팽창)

다. 소통하고 상호협력적인 학교문화에서 물질·개인주의적 성향의 문화로의 변화

라.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의 고려보다는 천편일률적인 교육과정의 운영

마. 학부모의 학교교육 신뢰를 위한 부단한 소통 노력의 부족

바. 학생들간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학생자치의 문화의 활성화 미흡

사. 학생, 학부모, 교원간의 원활한 소통시스템 마련 및 운영 미흡

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더 많은 노력 필요.

자. 너무 이른 혹독한 입시경쟁에 시달려 배움에 대한 흥미와 열정 상실한 학생 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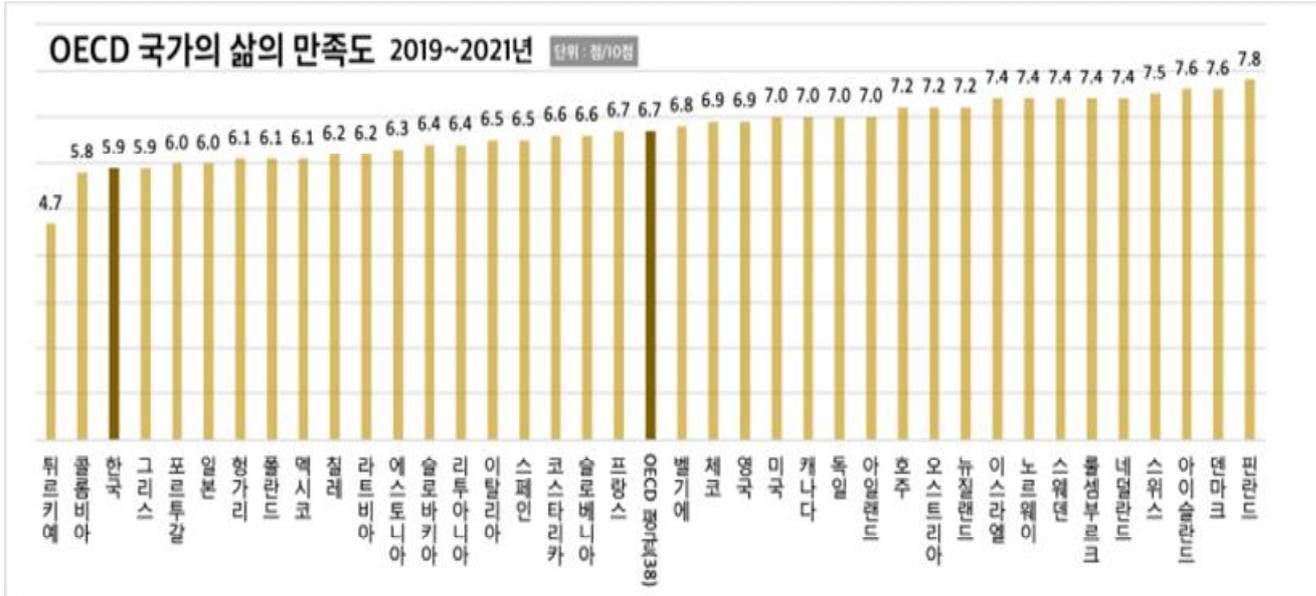
2. 학교교육 위기의 양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학교교육 위기의 형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학부모의 학교신뢰 저하, 학

교교육보다 사교육 선호 의존도 지속, 기초학력 미달자의 증가, 추락하는 교권 및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지도과정에서 오는 선생님의 무기력 및 사기 저하, 학생과 학생사이의 소통부족에서 오는 갈등빈도 증가와 학교폭력의 지속적 증가, 심리정서적 고위기 학생 증가, 자살학생의 지속적 증가, 책임과 의무는 도외시한 권리만 주장하는 학생의 증가도 학교교육의 위기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또한 “배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유연성이 더 요구되어도 변화없는 학교 현장, 의무교육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학교밖 학생의 증가(미취학, 유예, 대안교육 참여 학생 증가, 홈스쿨링 학생 증가, 늘어나는 고등학교 자퇴생, 미인정 유학생)가 단적으로 학교교육의 위기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3. 현재 대한민국 아이들은 어떤 모습인가?



<표1> 연도별 학생/청소년 자살 현황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교육부(7-19세, 초중고)	108	114	144	140	148	654
경찰청(만 18세 이하)	184	192	214	233	236	1,059
통계청(10대)*	273	254	300	298	-	

*주: 통계청 수치는 만 19세 이하 기준으로 학령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교육부, 경찰청 제출자료 및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취합 재구성)

<표2> (교육부) 추정원인별 학생 자살 현황 (2019~2020)

구분	실직부도/공립	가정불화	영세비판 우울	신체결함/ 질병	이성관계	성적비판 학업부진	폭력/ 집단괴롭힘	기타*	원인 미상**	계
2016	0	37	19	0	3	13	0	11	25	108
2017	1	36	27	1	2	13	0	14	20	114
2018	0	25	33	3	2	16	0	7	58	144
2019	2	18	18	5	6	11	0	22	58	140
2020	1	19	22	2	3	14	0	13	74	148
계	4	135	119	11	16	67	0	67	235	654

*기타: 복합원인(음주 후 우발 등) **원인미상: 짐작 불가로 보고된 건 (자료: 교육부)

<표 3> 청소년 연령대별 자살율



<표 4>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표 5> 아동·청소년(0~19세)의 상위 5개 정신질환별 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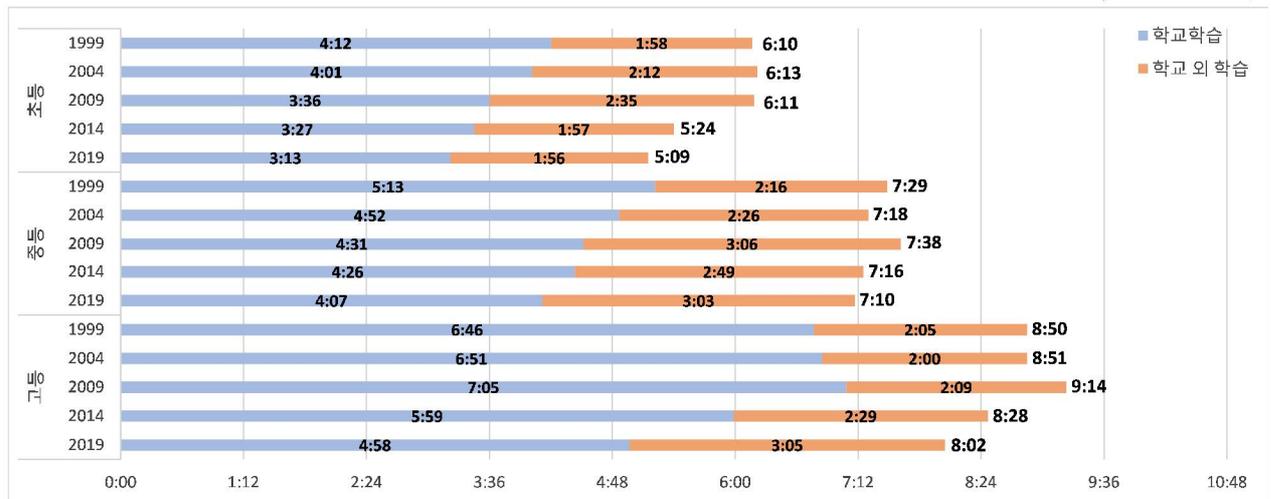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운동과다장애	50,049	운동과다장애	51,040	운동과다장애	53,663	운동과다장애	60,202	운동과다장애	60,285
우울증	26,054	우울증	29,534	우울증	42,095	우울증	47,476	우울증	48,221
기타 불안장애	16,471	기타 불안장애	17,726	기타 불안장애	21,133	기타 불안장애	23,258	기타 불안장애	24,985
틱장애	14,139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14,577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16,160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18,576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16,699
전반발달장애	13,531	전반발달장애	14,205	전반발달장애	13,948	전반발달장애	16,268	전반발달장애	16,641

주: 환자 연령은 진료시점 만(滿)나이 기준으로, 다른 연령대와 단순 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2021. 4. 16.)를 재구성함

<표 6> 청소년 학교급 별 학습시간 (1999~2019)-통계청

(단위: 시간:분)



주: 1) 1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급별에서 수학여부는 '재학'인 경우에만 해당

2) 9월 시간량 자료를 이용하여 주행동을 기준으로 작성됨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표 7> 학교급 별 사교육 참여율 및 주당 참여시간] -통계청

구분	사교육 참여율(% , %p)				주당 참여시간(시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1년	75.5	82.0	73.1	64.6	6.7	6.8	7.0	6.3
2022년	78.3	85.2	76.2	66.0	7.2	7.4	7.5	6.6
증감	2.8	3.2	3.0	1.4	0.5	0.6	0.5	0.3

<표 8> 학교폭력 학교급 별 피해 응답율-교육부 보도자료



<표 9> 2021년 ~2022년) 피해유형별 비중(%) -교육부 보도자료



<표 10> 학교폭력 가해학생 현황-교육부 보도자료

구분	구분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같은 학교 다른 학년	다른 학교 학생	잘 모르는 사람	기타
가해자 유형	전체	45.8	29.7	8.4	5.6	3.8	6.7
	초	45.9	29.0	9.2	4.9	3.8	7.2
	중	46.2	31.6	5.8	7.8	3.5	5.1
	고	42.7	33.8	4.9	8.9	4.8	4.8

<표 11> 학교폭력 발생 장소-교육부 보도자료

구분	구분	학교 안 (61.8)							학교 밖 (34.3)						
		교실안	복도 계단	운동장 강당등	회장실	특별실 등	기숙사	급식실 매점등	놀이터 등	사이버 공간	학원 학원 주변	학교밖 체험	집, 집근처	PC 노래방 등	기타
피해장소	전체	26.6	16.1	9.2	4.1	2.9	0.4	2.5	11.1	8.5	5.7	3.2	5.2	0.6	3.9
	초	25.7	15.1	9.5	4.0	2.6	0.2	2.3	13.2	7.2	6.6	3.4	5.8	0.4	4.1
	중	29.6	19.9	8.2	4.4	3.3	0.4	2.8	4.6	13.3	3.2	2.3	3.5	1.4	3.1
	고	29.2	17.4	7.7	5.1	5.7	2.5	4.9	2.7	12.5	2.2	2.0	2.9	1.4	3.8

4. 학교교육 정상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란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원칙을 벗어난 변칙이나 약식의 방법이나 방향으로 이루어졌거나, 진행되고 있는 학교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의 정책전환, 교수방법의 적정화, 교육과정 평가의 개선, 인성교육 방법·방향의 전환, 생활교육 방법

등의 개선을 이루어나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시1) 코로나 19로 인한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수업시간의 단축→정상적수업 시간 운영, 원격수업중심→대면교육으로, 개인생활 위주→모둠 집단활동 가능, 소규모 주제별 체험학습→중, 대규모 수학여행 가능,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자율착용 등)

예시2) 지식위주의 형식적인 인성교육→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실천중심 인성교육

예시3) 학교중심의 인성교육→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예시4) 통제위주의 생활규정→학교구성원 자율·책임 중심의 생활규정

예시5) 지시, 통제위주의 생활지도→소통과 공감, 배려와 존중의 생활교육

본 토론회에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지원팀의 소관업무인 인성교육 추진내용,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육, 위프로젝트를 통한 예방과 회복의 상담활동 사업, 학생심리·정서 지원,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위한 고위기학생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팀의 교육 정책 내용과 지원업무가 명확하고, 타 부서의 고유업무 내용에 정책의 방향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본 팀의 업무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함을 밝혀둔다.

II 본 론

1. 인성교육 추진 내용

가. 충남인성교육의 요구 분석 및 시사점

1)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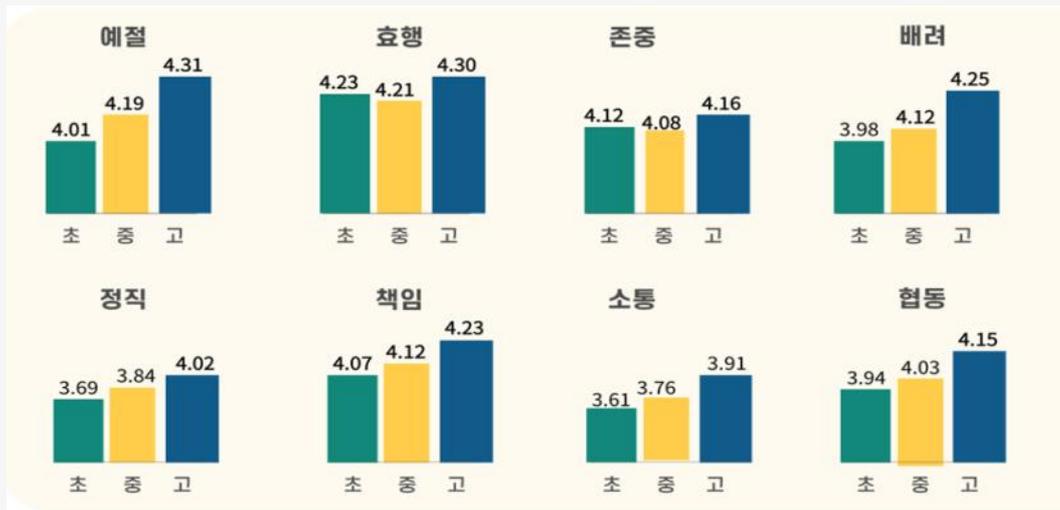
충남인성교육 실태분석 개요

- ◆ (참여자) 초·중·고 학생(11,546명), 초·중·고 학부모(9,713명), 유·초·중·고 교사(2,360명)
- ◆ (설문내용) 인성교육 실태 및 요구 등
- ◆ (기간/방법) 2022. 3. ~ 11. / 온라인 설문조사 및 설문 분석

2) 설문 분석 결과

가)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 수준 (N=11,546)

※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성핵심가치·덕목 수준



나)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 역량 수준 (학생 N=514, 교원 N=139, 학부모 N=517)

※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성역량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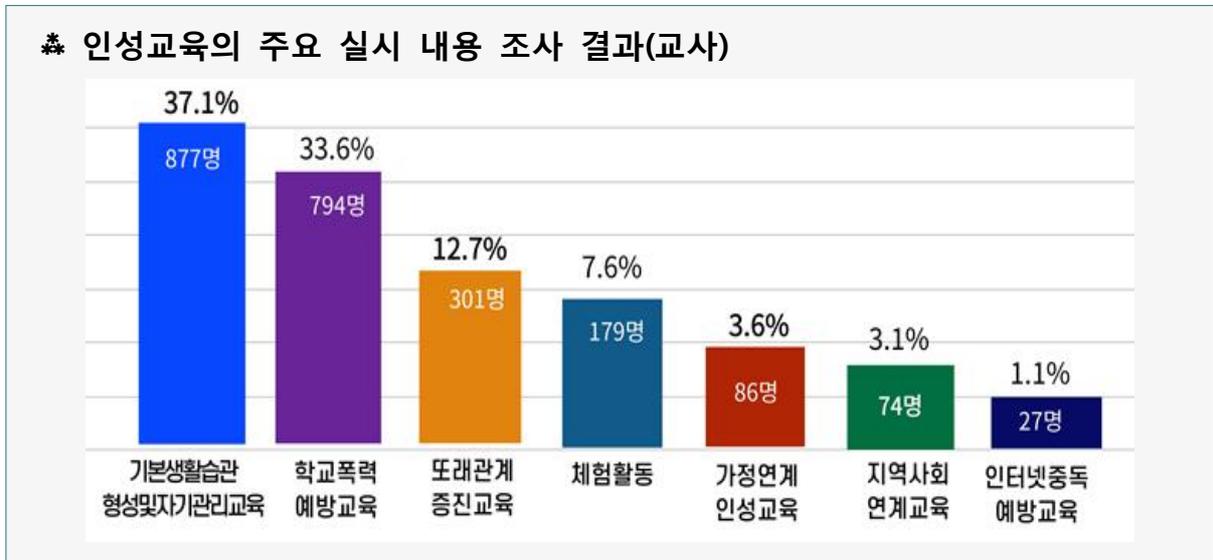


교육부에서 제시한 5가지 역량 중 중·고등학생 두 집단에서 대인관계 역량을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자기관리 역량을 가장 낮게 응답함

다) 학교 인성교육 주체 (N=2,3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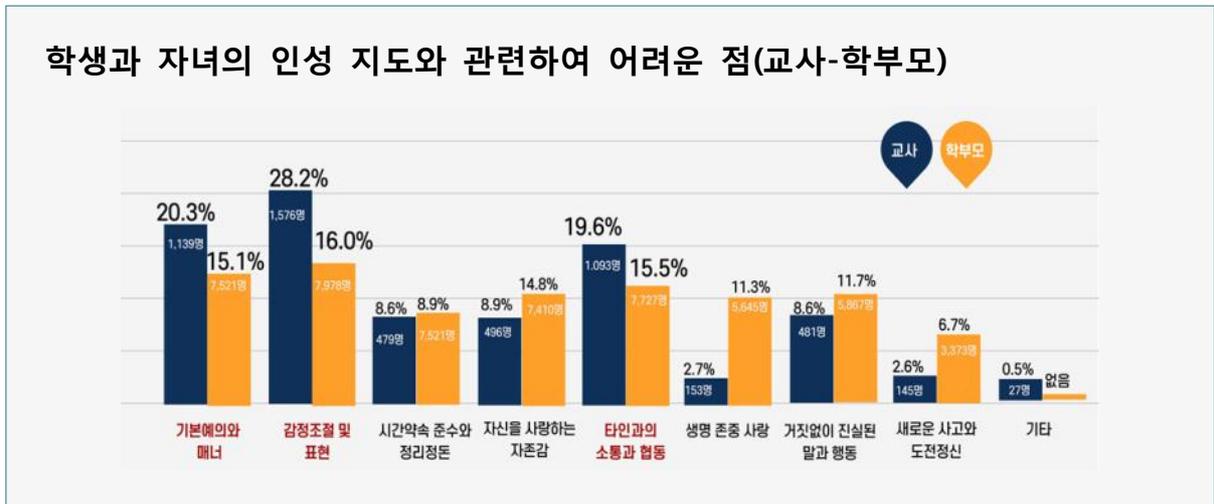
라) 학교 인성교육의 주요 실시내용 조사 (N=11,5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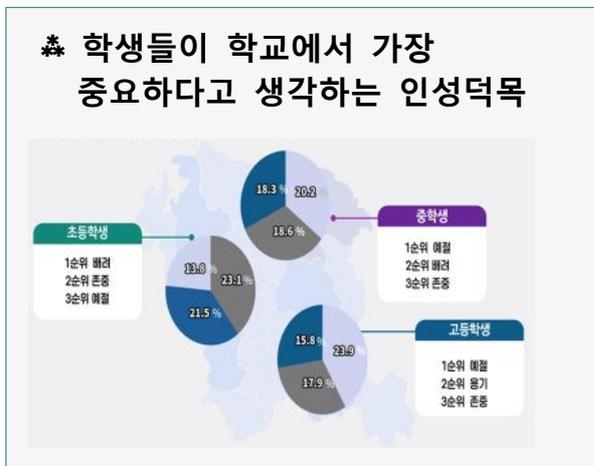
마) 교사-학부모의 인성교육 참여 경험 (N=11,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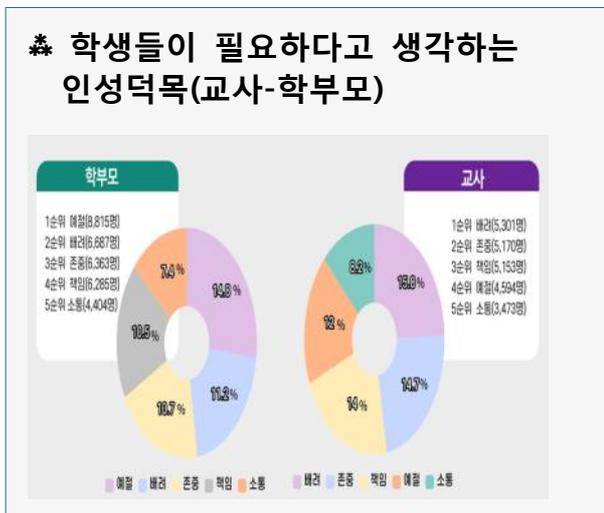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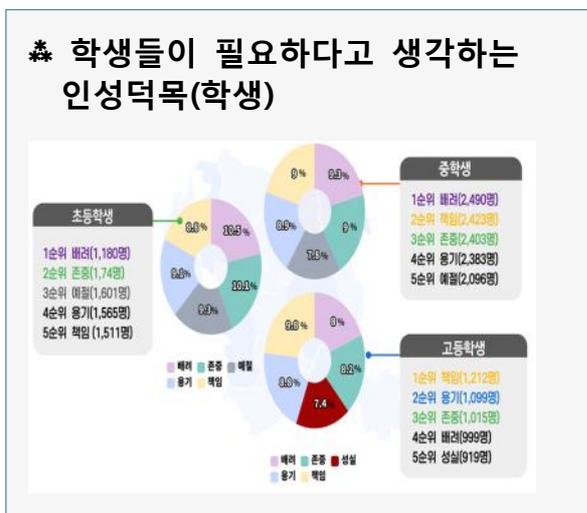
바) 학생, 자녀의 인성 지도 시 어려운 점 (N=11,546, %)



사)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성 덕목(N=182, %),(N=3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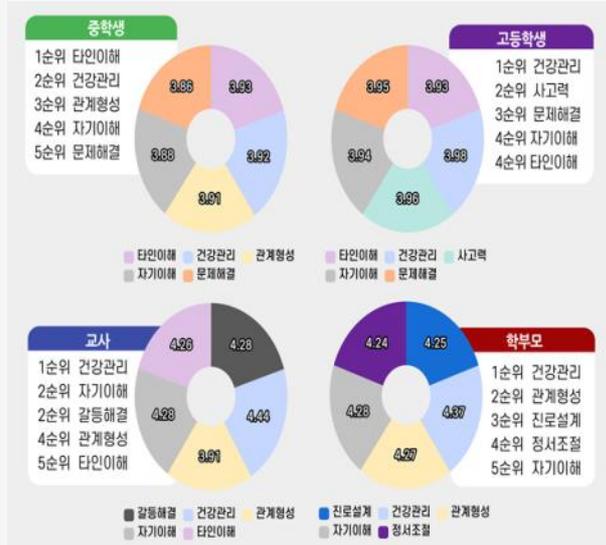


아)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성덕목 (N= 11,546, %), (N= 12,073, %)



자)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성덕목 (N=20,1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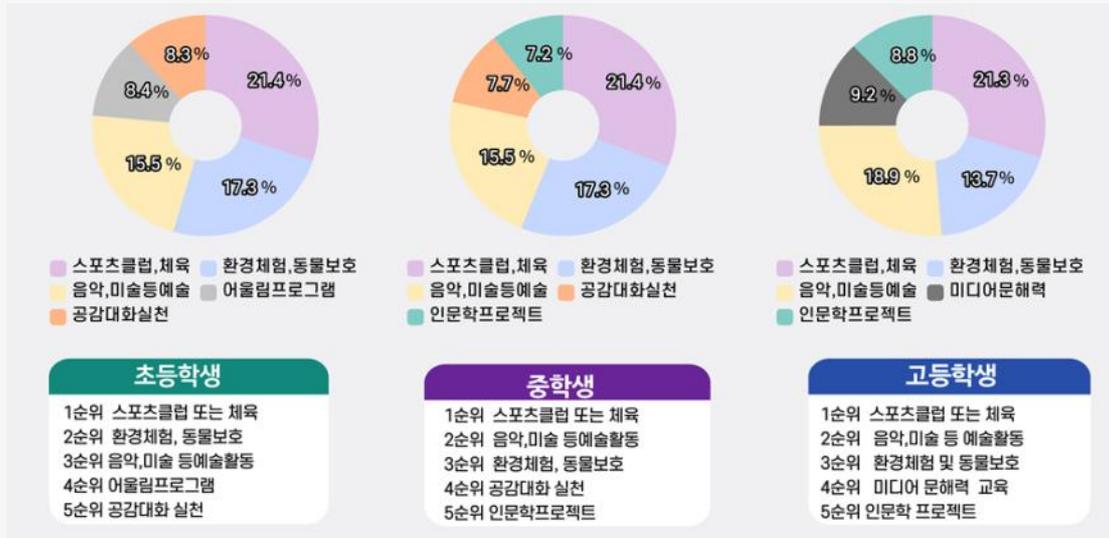
✚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성역량



중·고등학생과 교사, 학부모간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성역량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중학생은 타인이해역량을 고등학생·교사·학부모는 건강관리 역량을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응답함

차) 더 실시해주기를 바라는 인성교육 활동 (N=11,546, %)

✚ 더 실시해주기를 바라는 인성교육 활동(학생)



3) 시사점

가) 기본적인 <예의>를 바탕으로, <배려·존중·협력>을 중점 가치·덕목으로 선정, <자기관리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에 중점을 둔 충남인성교육 추진

- 나) **다양한 주제**의 인성교육 활성화(문·예·체교육, 생태환경, 생명존중, 미디어 등)
- 다) **바른 언어생활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
- 라) 교원과 학부모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인성교육의 주제 확대**)
- 마) 인성교육 공감대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지역과의 협력**)

나. 충남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역량



다. 2023 충남인성교육 주요 중점 추진 사항

1) ‘빛깔 있는 우리학교 인성교육’ 계획 수립과 실천

- ☞ 학교별 특성과 여건을 살려,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인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

2)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 전개

- ☞ 2022년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이 41.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 충남 인성교육 실태분석 결과에도 배려와 존중, 감정조절과 표현,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함양의 필요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 이에 충남교육청은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으로 교육공동체 상호간의 관계를 개선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함

3)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우수 민간단체 위탁 운영(8개 단체)

- ☞ 상담, 놀이, 동물교감, 인형극 등 지역과 연계한 체험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성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1)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핵심 가치·덕목은 ‘예, 효, 책임, 정직, 용기, 존중, 배려, 소통, 협력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인성교육 실태분석 결과 초·중고 학생 모두 자신들에게 ‘용기’ 덕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함.

라. 세부 추진 내용

영역	과제	세부과제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의 안착	교육과정에 기초한 인성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인성교육 관점 반영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에 인성교육 요소 반영 - ‘빛깔 있는 우리학교 인성교육’ 추진 	
	학교·교원의 인성교육 실천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위한 연수 운영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안착 지원 실천중심 인성교육 운영 현장 지원 	
		주제별 실천중심 인성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한 인성과 정서 함양을 위한 문·예·체 교육 모두가 실천하고 함께 참여하는 생태환경·생명존중 교육 소통과 갈등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미디어 교육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따뜻한 학교공동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주체 간 의사소통 문화 개선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 전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와 함께하는 실천중심 인성교육 공감과 소통의 가족 대화 활성화 - ‘10분 수다날’ 운영 학부모 자녀 인성교육 역량 강화 	
		마을,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 인성교육 우수 민간단체 위탁교육(8개 단체)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 - 마을교육 등과 연계한 건강한 인성교육 생태계 조성

마.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관계중심 생활교육

1) 관계 중심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제와 지시 중심의 생활지도에서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 교육으로 전환하고 생활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인격형성과 공감·배려의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계회복교실 운영, 회복적 써클의 활용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실천하고 교사 지원단 운영과 이끄는교사 연수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고 지키는 학교생활규정 운영

일방적인 생활규정이 아닌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고 함께 지키는 학교

생활규정을 통하여 스스로 생활규정을 지킬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학생의 징계는 처분 중심의 징계를 지양하고 선도 중심의 단계적 조치로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추진 현황

가. 2021 학업 중단자 현황

기준 학년도	학교급	전년도 학생수	중단자수	총남 중단율 (%)	중단 사유			
					유예	면제	자퇴	퇴학
2021	초	118,771	428	0.3	154	274		
	중	59,514	284	0.4	205	79		
	고	56,671	970	1.7		4	931	35

학업중단률은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원격수업 증가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총남의 학업중단률은 매년 전국평균과 비슷한 정도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국평균보다 낮으나, 고등학교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나.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1)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 학생의 조기 발견을 통한 상담 및 학업중단을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항목	운영 기관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 	
숙려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말, 공휴일 포함 최소 2주(14일) 이상 ~ 최대 7주(49일) 이하 ※ 최소 2주 이상 운영을 권장하나 상황에 따라 1주도 가능 	
전담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 	
프로그램 운영 기관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자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Wee클래스)
	외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꿈드림 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타 시도 연계) 타 시도 교육청 수용하여 안내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주 2회 이상 참여 → 해당 주간 전체 ‘출석인정결석’ 처리 프로그램 주 2회 미만 참여 → 참여일만 ‘출석인정결석’ 처리 (불참일 포함 주간 ‘미인정결석’ 처리)
학생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려기간 동안 학생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 철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숙려기간은 7주(49일)를 초과할 수 없음 (전입생은 기실시 여부 확인) 숙려제 운영기간은 지필평가 기간을 피하여 실시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 위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출석 일수에도 숙려제를 참여하면 출석인정을 해주고 있다. 숙려제 참여는 학업중단 숙려제 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에 불성실하거나, 예체능 학원을 다니는데 이용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언제든지 복교를 명할 수 있다. 학교 생활자체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참여하기 때문에 꼭 차게 짜여진 프로그램 등은 참여하기 힘들어 하는 학생이 많은 상황이다.

2) 학업중단 숙려제 지원교, 행복드림학교 지정 및 운영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해 맞춤형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연중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지원교(26교)와 행복드림학교(21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업중단률이 높은 학교를 지정하거나 학교에서 신청한 후 선정하였으며 학교와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구분	2022년 참여자수	2022년 복귀자 수(복귀율%)	비 고
초	2명	2명(100%)	
중	11명	11명(100%)	
고	44명	37명(84.09%)	
계	57명	50명(87.71%)	

※ 복귀자 수 :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참가 후 학업지속 학생 수, (천안교육지원청 : 2022.3.1.-12.1까지)

3) 누리봄 교실

학교 내 대안 교육을 실시하는 별도의 학급을 설치하여 위기 학생의 학교 부적응을 해소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교실을 운영한다. 사업 선택제로 총 23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와 학생의 특성에 맞도록 위기학생을 선발하여 주당 2~5회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의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4) 으라차차! 아이사랑 프로그램

다양한 원인에 의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 교직원이 1년 동안 결연을 맺고 학생들에 대한 정기적 상담, 학습지원, 사제동행 활동 등을 하면서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형성과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한 교직원이 무기력,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하여 밀착형 지원체제 구축하고 있다.

2022년 추진현황은 364교(초121교, 중142교, 고101교), 교직원 1,160명, 학생 3,146명 참여 하였고 학업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직원의 지속적인 이쁨이 프로그램으로 정착중이다.

다. 대안교육 프로그램

1) 대안학교 및 위탁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부여를 통하여 학업중단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충남에 여해학교, 충남다사랑학교, 드림학교 등 3개의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취지에 따라 [대안교육 철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학생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치유 프로그램 등 대안교육의 기회 부여를 통하여 부적응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있다.](#)

2) 전일제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운영

전일제 대안교육위탁기관 총 6기관 연중 70명 위탁교육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탁 기관 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학생들을 위탁하여 인성과 학교 적응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 통학을 하거나 기숙사를 운영하기도 한다.

3) 반일제 대안교육 직업 위탁교육 운영

반일제 위탁교육은 오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에 각종 직업위탁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위탁기관을 선발하였으며 위탁기관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노력중이다. 현재 29개의 기관에서 요리, 미용, 플라워아트, 운동, 제과 제빵, 바리스타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적성에 맞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호응이 좋은 편이다. (22년 23개→23년 29개)

3. Wee프로젝트 추진 현황

가. 예방과 회복의 상담 활동 운영 현황

1) Wee프로젝트 추진배경 및 목적

- Wee프로젝트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학생 및 부적응 학생의 회복과 모든 학생의 심리정서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 학교폭력, 학대피해, 학업중단 등 심리·정서적·가정적 위험 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
-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다종의 촘촘하고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소통 단절에 대한 관계회복 지원

2) 예방과 회복의 Wee프로젝트 운영

- 만남과 소통의 Wee클래스, 선택과 집중의 Wee센터, 치유와 회복의 Wee스쿨 운영, 고위기 학생 및 가족 심리치유 지원 사업 운영(1기관 위탁-천안)
-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위한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직무연수 및 슈퍼비전)

3) 심리 정서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한 단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기 초 학생 상담주간 운영(Wee클래스)

- 도란도란 친구사랑 프로그램 운영(320교, 500천원 지원)
- 대인관계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341교, 500천원~1,800천원 지원)
- ‘친구야 만나자’ 프로그램 운영(169교, 3,000천원~9,000천원 지원)

4)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상담 지원

- 학교폭력 피해 및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 가정형 위센터(차오름센터) 운영
-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 운영(51기관)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운영(75교), 학생대면상담 자문(Wee센터 자문의 25명)
- Wee센터 및 Wee클래스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보호자용 개발 예정)

나. 생명존중 및 학생 자살예방 운영 현황

1) 위기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운영

- 위기 상황 조기발견, 신속한 대응, 전문기관 연계, 사후 관리를 위한 체계구축

단 위	내 용
(도교육청) 위기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e센터 위기지원팀 자문 ◦ <u>다양한 위기 사례에 대한 개입 및 자문, 위기지원팀과 함께 현장지원</u> ◦ 위원구성(정신건강전문가, 상담전문가, 유관기관 담당자, 전문상담교사등) ◦ 정신건강 관련 연수운영 및 사례회의
(Wee센터) 위기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자문, 사안 발생교 현장지원</u> ◦ <u>학생 상담·치료비 추가 지원 심의·의결</u> ◦ 위기 사안 발생 시 긴급 지원으로 학교 일상 회복 유도 ◦ 위원 구성(정신건강전문가, 유관기관,경찰, 변호사, 전문상담교사 등)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위기학생 발생 시 위원회 개최 (구성원 역할 분담)</u> ◦ 위원회 결과 적용을 위한 학생·학부모 안내 및 적극 개입 ◦ <u>위기발생 가능성 예측 및 예방(자살시도사안 필히 실시)</u> ◦ 위원구성은 위원장 교장 학생부장,상담교사,보건교사,학년부장등

2) 생명존중(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 생명존중의식 함양과 자살예방교육

상담주간 연계 학기 초 생명존중 교육 운영, 교과연계(도덕, 보건, 사회 등)와 창체시간 등을 이용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 연간 6시간 실시 및 학교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 실시함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Wee센터, 지역유관기관 협력 지원, 교육지원청 별 관리자 자살예방교육 및 학생위기관리연수 실시(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자료 보급: <http://schoolhealth.kr>)

학기 초, 시험기간 전·후 자살증가로 기간을 특정하여 자살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자살예방 캠페인 기간을 확대 실시(연중)

- 학교폭력신고(117), 청소년상담전화(1388),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 위기문자 상담망(모바일, SNS기반) ‘다 들어줄 개’
- 카카오톡, 페이스북, 전용 어플, 문자(1661-5004) 등으로 참여
- 학생자살예방 교원 및 학생 연수, 고위험군 학생치료 등에 활용

3) 고위험군 선택적 예방 및 집중 지원

-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전문적 관리 및 지원 강화(학교방문사업)

정신건강 위기 학생중 전문기관에 미연계 되었거나 의료 취약지역, 학부모 미동의 학생에 대하여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를 방문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치료·회복 지원을 위한 치료비 지원함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2개소 운영- 천안 중앙병원, 논산 백제병원)

- 전문기관 연계·치유지원 관리 체계화

- 관심군, 고(자살)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기관 연계·치료지원 강화
 - 지역별 Wee센터 중심 협력체계 구축 운영(유관기관 협력운영)
- 자해·자살시도 학생 위기관리 의무실시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한 자살 재시도 방지(고위험군 학생 치료 시 학업중단숙려기간으로 처리 가능)

- 위기학생 학생 치유(치료) 지원 연계 기관

기관	내 용
차오름센터	◦ 위기학생 긴급 위기 개입 ◦ 기숙형 집중 치유프로그램 운영 ◦ 위기학생 중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 안정이 필요한 학생 의뢰
고위기 상담위탁기관	◦ 고위기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치유지원 ◦ 집단 상담, 교사 자문 ◦ 위기사안 발생 시 자문 및 위기지원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센터	◦ 정신건강전문가 심층평가 위기개입 ◦ 학부모 상담 및 교사 자문 ◦ 학생 맞춤형 치료연계 및 치료비 지원
미음건강 자문의 운영	◦ 부적응 및 고위기 사례 상담 자문 ◦ 도내 정신건강전문가 위촉 치료지원 ◦ 교사 및 학부모 상담자문 및 교육

4) 학생자살(시도)사안 사후 개입 시스템 내실화

- 자살시도자(자살성 자해 포함) 사안 개입 절차

•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등 지원을 통해 위기학생 다각적 지원체계 확보하고, 학교 구성원 및 유가족 상담 치료지원에 노력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철저 (긴급출동 및 연계) 112(경찰), 119

(소방)에서 위기상담전화와 연계한 현장출동과 긴급구조 실시, 의료기관 ,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위기학생 발생교 긴급 심리 지원 : 특별상담실 운영, 애도 프로그램 및 트라우마 예방 프로그램, 안정화프로그램 운영. 담임, 담당교사, 전문상담인력 위기 대응 컨설팅

-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도교육청 자살시도 치료비 지원)**

- (대상) 자살시도(자살성자해) 중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학생
- (지원내용) 병의원(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상해 및 정신과) 치료비
- (지원금액) 신체상해 300만원, 정신과 치료 및 상담비 300만원 한도
- (대상) 자살 및 자해시도 학생, 학업중단 위기학생,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기타 심리·정서적 위기로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III 나가기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우려중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대면수업시보다 많은 저하를 가져왔다는 의견이 많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서·사회성 발달의 취약으로 언어, 정서, 인지 분야에서 많은 지체와 더불어 만10~18세의 영양결핍율(16.7→23.4%) 증가, 학생 비만율도 증가했다(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2022, 보고서)는 사실과 함께 학교폭력 발생을 증가,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고위기학생 증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 비대면과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들간의 소통과 교류의 부족, 저소득층학생들의 학교급식 중단,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한 스포츠동아리 축소, 주말체육활동의 축소, 활성화 되지 못한 학교체육, 현장학습의 축소,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과 경험의 부족, 동료, 선·후배 학생들과의 관계맺음 부족의 결과로 생각된다.

학생들의 인격형성과 심신의 발달은 일반사회의 축소판인 학교사회에서 1차적으로 일어난다. 학교의 위기가 곧 사회의 위기로 전환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어야 건강한 사회로의 순환구조가 이어진다.

1. 인성교육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

많은 선배 교육자들은 학교교육의 중요한 기능으로 학업성취와 인성교육을 학교의 주요 기능이며 학교를 움직이게하는 양대 수레바퀴라고 주장하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회의 변화와 교육트렌드가 바뀌어도 인성교육이 학교의 주요 기능임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학교에 맞는 “빛깔있는 우리 학교 인성교육”을 교육공동체와 머리를 맞대고 계획하고 실천하여 학생들에게 체득화되면 학생들간의 갈등과 학교폭력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 가족과 함께하는 “10분 수다 날”이 학교와 가정에 널리 퍼져나가면 서로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넘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되어 학교가기가 기다려지고 더 오래 머물고 싶은 학교문화가 정착되어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관계중심 생활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대한 요구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향이다. 새로운 시대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소통 능력을 키우고 학생의 주도성을 높이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미래사회의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인 자기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공동체 능력 모두 관계성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관계성을 키워나가고 이를 기반으로 생활교육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2. 학업중단숙려제 강화와 대안교육의 다양화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별 정형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을 잠정적 자퇴학생으로 인식하는 학교분위기의 변화와 지양도 필요하다.

또한 숙려제 참여 학생에 대한 학교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Wee센터와 Wee클래스(혹은 담임교사)의 협업이 필요하며, 진로문제로 인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시 진로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도 필요하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 컨설팅 강화, 교육지원청의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인력 지원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불만은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기관의 지속적 증가로 나타난다.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일제 위탁기관의 다양화, 반일제 대안교육 직업 위탁교육의 다양화에 지속적 관심과 수요처 발굴 노력, 학교내 대안교실 지원 확대 및 단위학교에 대한 컨설팅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3. Wee프로젝트, 학생정신건강 강화를 통한 학생 정신근육 단련

Wee프로젝트는 학교에는 위클래스, 교육지원청에는 위센터, 시도교육청에는 위스쿨을 설치하여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종의 통합지원서비스망이다. 학교폭력, 학업문제 등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상황에 Wee프로젝트가 개입하여 문제해결과정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Wee클래스나 Wee센터의 심리상담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 심리적 어려움과 고통을 상담자와 대화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당면한 문제해결과 자기이해를 돕고 앞으로의 삶에서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도록 협력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학생 상담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해결 및 마음의 치유, 심리적 성장을 경험함으로써 원만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3.1자로 충남교육청에 개소된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구축 운영과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서비스와 고위기 학생 치유 지원사업으로 고위험군 학생 지원의 체계화로 더 촘촘한 학생정신건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함으로 위기학생의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하여 학교생활에 즐겁고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위프로젝트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순기능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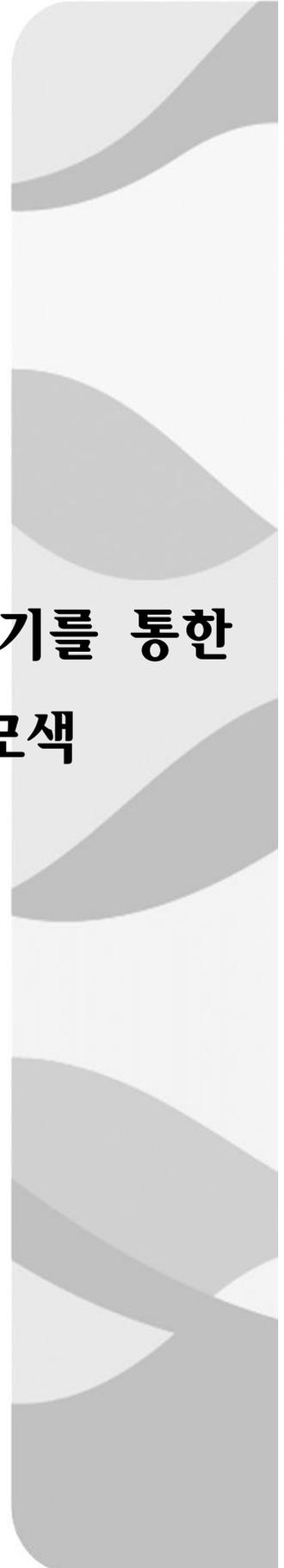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토론

행복한 교실, 즐거운 수업 만들기를 통한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 모색

신상원

(천안병천중학교 교사)



행복한 교실, 즐거운 수업 만들기를 통한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 모색

신상원(천안병천중학교 교사)

I 들어가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일탈행동이 빈번해지고 교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비단 최근에만 강조된 것은 아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학교라는 교육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상황들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거나 극찬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으며, 각 시대 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아쉬운 점들을 중심으로, 그 대안과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때문에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향후 미래사회에서도 이러한 고민과 노력은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다만,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주장하게 하는 요인들,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원인은 각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때문에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각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았다.

오늘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주장하게끔 만드는 요인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생들의 일탈행동이 빈번해지고, 교권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들을 찾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나, 혹은 일탈행동과 교권침해가 벌어졌을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및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시행되거나, 논의를 거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입장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 시대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그러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일탈행동을 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아이들에 대한 대처도 다양화 및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교사는 이러한 제도와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교 교사로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으로 행복한 교실과 즐거운 수업 만들기, 나아가 이를 널리 알리고 학교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간단히 정리 및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시될 내용의 교육 공간과 대상은 본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본 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교사로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대의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과 함께 나누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었다.

아이들의 일탈행동과 교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극히 당연한 방안이지만 ‘행복한 교실, 즐거운 수업 만들기’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역시 당연하고 뻔한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각 시대를 막론하고 학교라는 교육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방법은,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원초적인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학교를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관통할 수 있는 요소로 ‘교실’과 ‘수업’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수업 시간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다면, 당연하지만 일탈행동과 교권 침해의 현상이 줄어들 것이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행복한 교실 만들기’이다. 본 교사가 제시할 행복한 교실은 주로 학급 경영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즐거운 수업 만들기’이다. 이는 말 그대로 수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몇 가지 소개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러한 학급 경영과 수업 모형을 통해 행복한 교실과 즐거운 수업을 만들 수 있다면, 이를 교사 간에 널리 알리고 공유하며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행복한 교실 만들기’와 ‘즐거운 수업 만들기’에서 소개할 사례는 ‘에듀넷·티-클리어 (<https://www.edunet.net>)’의 다양한 연구대회 수상작들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가. 행복한 교실 만들기(학급 경영을 중심으로)

1) 통·통·통 프로그램을 적용한 안다미로 어울림 학급 만들기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학교 시기의 학급 생활은 사회성을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중학교 학급 단위의 인성교육에 대한 실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의 교사들은 꿈이나 목표에 대한 성찰 없이 무기력한 아이들, 친구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공동체보다는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아이들로 인해 학급을 경영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자기 성찰, 소통, 화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장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학급 공간에서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협력적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블렌디드 학급활동인 통·통·통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급 공동체의 원활한 블렌디드 학급활동, 통·통·통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협력적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협력적 인성이 함양된 학생들이 모인 학급은 화합과 어울림이 넘치도록 가득한 안다미로 어울림 학급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 실행 내용

- ① ‘성찰을 통한 마음 채우기’ 활동으로 자기존중, 자기효능, 자기조절 인성 역량 함양하기

■ 연구과제1의 구성: 나 자신을 이해하기 ➡ 나 자신을 응원하기 ➡ 나의 마음 채우기

- 타인과 소통하고 어울리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이에 개별 면담을 통해 라포 형성도 하고 그동안 관찰한 장점도 알려주며 자아존중감을 키워주고자 하였다. 또한, 스스로의 장점과 강점, 원하는 것 등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요즘 담임교사들은 성적통지표의 개별 가정통신문을 잘 쓰지 않는다. 그러나, 교사와 학부모가 연계되는 소통은 학생들의 생활지도 뿐 아니라 인성 함양에도 매우 중요하다. 학생이 스스로 느낀 장점과 적성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와 공유하였다.
- 생명을 키우는 일은 다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감정 조절 효과는 유명한 사실이다. 주거 환경상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집에서 키우기 비교적 쉬운 반려 식물 키우기 활동을 마련하였다.

② ‘대화를 통한 마음 열기’ 활동으로 공감, 소통, 배려 인성 역량 함양하기

- 연구과제2의 구성: 소통의 분위기 조성하기 → 대화 시작하기 → 마음 열기
- 소통의 첫 단계는 공감이다. 귀찮을 수 있는 아침 조회 시간,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들으며 느낌을 공유하고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 친구를 응원하는 글로 노랫말을 개사하며, 혹은 좋아하는 계절에 대한 이야기로 친구에게 공감하기도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소통의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 친구의 생일을 학급 친구 모두가 축하해 주고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소통할 수 있도록 월별 생일 파티 활동을 마련하였다. 본래는 친구들이 모두 돌아가며 A4용지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적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교사만 생일카드를 전달하였다. 요즘의 아이들은 의외로 손글씨에 감동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직접 손으로 쓴 카드를 준비하였다.
- 투명 지니 게임은 평소 친해지기 어려웠던 친구의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하고 비밀 미션을 수행하면서, 공동체가 된 학급 친구들과의 우애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고자 마련한 활동이다.
- 배려 받아 본 사람은 남을 배려할 수 있게 된다.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을 적으면서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말을 시험 공부로 지친 아이들에게 응원 메시지로 보내주어 교사가 배려하는 마음을 학생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③ ‘화합을 통한 마음 나누기’ 활동으로 책임, 존중, 협력 인성 역량 함양하기

- 연구과제3의 구성: 마음 연결하기 → 마음 화합하기 → 마음 나누기
-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역할들을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맞게 스스로 선택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결정한 후 수행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수행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어느 정도 알아야 하기에 3월이 아닌 6월에 실시하였고, 자신이 맡고 싶었던 역할이라도 다른 친구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부 인증 인성교육 프로그램 ‘마음모아 톡톡’20)의 활동 자료를 이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언어폭력 포함)의 장면을 대본으로 접하며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공동체 유지를 위한 책임 역량을 키우고자 활동을 마련하였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패들렛에 작성했던 글을 (익명으로) 전시하여 공감하는 글에 스티커를 붙이고 응원하며 서로 존중하는 태도와 공감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또한, 패들렛에 쓴 글과 추억이 담긴 사진을 개인 문집 ‘우리들의 말모이’로 엮어 개인 성장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 친구와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미션 수행을 하며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텔레파시 게임이나 셀카 찍기 활동을 구상하였고, 협력하여 완성한 작품이 목표량에 도달하면 기부하는 활동으로 마음 나눔의 장을 마련하였다.

다) 검증 방법 및 결과

KEDI 인성 역량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인성 역량(자기존중, 자기효능, 자기조절, 공감, 소통, 배려, 책임, 존중, 협력)을 측정하였고, SPSS WIN 28.0 program을 이용하여 사전·사후 설문 분석 결과, 사전에 비해 사후에 각 인성 역량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변화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학생 소감문, 교사의 관찰, 교과 교사의 평가를 통해서도 학생들의 인성 역량 향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첫째, ‘성찰을 통한 마음 채우기’ 활동은 자기 존중, 자기효능, 자기조절 인성 역량 함양에 효과가 있었고, 둘째, ‘대화를 통한 마음 열기’ 활동은 공감, 소통, 배려 인성 역량 함양에 효과가 있었으며, 셋째, ‘화합을 통한 마음 나누기’ 활동으로 책임, 존중, 협력 인성 역량 함양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인다. 아울러, 학교생활 만족도 및 학급활동 만족도 또한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라) 결론 및 제언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통·통·통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인성 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협력적 인성을 갖춘 안다미로 어울림 학급이 만들어 졌다고 결론 맺을 수 있다. 이에 연구를 마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에서 학급 단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구가 널리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2) 학생 MILD 프로젝트('마음(M) 알기, 이끌기(I), 나누기(D)' 로 포근한 학급 만들기)

가) 연구의 필요성

- 나 가꾸기: 소중한 나를 느끼며 나 자신을 가꾸기 위해, 나의 건강한 꿈과 미래를 위해
- 너와 어울리기: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느끼며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나와 너의 건강한 소통을 위해
- 우리가 함께하기: 사랑하는 이웃을 느끼며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포근한 학급을 운영하여 스물여섯 명의 아이들이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배려 및 공동체 의식을 내면화하고, 기본생활 규범을 실천하여 바른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첫째, 나의 소중함을 알고, 올바른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삶을 가꾸어

간다. 나의 소중한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고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둘째,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는 협력의 가치를 함양한다. 타인과 소통하며 협력하여 함께 이루어 내는 경험을 통해 나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다.

셋째, 가족 안에서의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고 마음을 표현하며 가족 사랑을 나눈다. 가족이 주는 따스함 속에서 가족들의 지지와 사랑을 느끼며 건강한 인성을 키운다.

넷째, 공감과 나눔의 감수성을 키워 주위와 소통하며 세상과 조화를 이룬다.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한다.

다) 연구과제의 실천

과제1	Mind		활동 모습
마음 알기	소중한 나의 마음 알아보기	'선물 같은 나와 너'	· Mint 활동 · 팝업 캐릭터 활동 · '나의 위대한 탄생 답사기'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알고 인정하며 존중하기	I & YOU or YOU & I	· 별의별★ 캐리커처 · 사랑해 하트♥ 만들기
	자신감이 넘치며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나 가꾸기	나 가.꾸.기. 프로젝트	· TIME CAPSULE 미래우편 발송 · 꿈도.발.(꿈 도전 발표) · 금연서약 나무
과제2	Lead		활동 모습
이끌기	학교 및 생활 속에서 바른생활 실천하기	'참 잘했어요!'	· 뽀송뽀송! 목욕데이 · 감사의 해피트리 · 칭찬 릴레이~
	어울림을 통해 함께 노력하여 공동체 의식 만들기	약속 다.방.	· 꼭꼭 약속해! · 필.통.(필요한 소통)이야기
	'나부터'라는 이름으로 존중, 배려 의식 싹트기	'오감(희노애락욕) 만족	· 오감만족 프로젝트 · 함께하는 다문화 이야기
과제3	Divide		활동 모습
나누기	나, 친구, 가족과의 사랑을 느껴보기	'고.사.리.' 프로젝트	· 고.사.리. 나누기 · 우리 가족 '사랑나무' 이름 달기 · 부모님 선물 만들기
	체험, 놀이 활동으로 행복 만들기	깔깔깔! 즐거운 학교생활	· 몸튼튼!! 스포츠 한마당 · 와글와글!! 교과체험 · 재미빵빵!! 진로체험
	공동체 활동을 통한 봉사 및 나눔 실천하기	행복 드림! 행복 나눔!	· 소.나.기.(소통, 나눔, 기억) · 마음 공동체 연계 수업(1),(2) · 뻥 투더 '우리'

라) 연구의 결과

① 긍정적 자아개념과 기본생활 습관 형성: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보다는 네가 먼저라는 의식이 확립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되었다.

② 사랑하는 마음과 공동체 의식 향상: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고 친구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모둠활동을 통해 서로의 힘을 합칠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와 함께 협동하면 더 큰 기쁨과 재미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③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세상과의 조화: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난 후,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각자 모두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행복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3)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ROSE-B.L.O.O.M 프로젝트로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

가) 연구의 필요성

· 공감 능력 결여: 학교 복도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활보하는 학생을 지도할 때 돌아오는 답. “답답해서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억울함을 표출한다.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는 도돌이표 대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 배려, 존중 부재: 아침 등교 시간,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꺼낸다. 한 공간에 함께 있지만, 대화 없는 적막 속 시선은 한 곳을 향한다. 자습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초조한 듯 벽시계와 휴대전화를 오가다 마지못해 몸을 움직인다.

· 소통 부족: 학생들은 SNS상에서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의 문제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

나)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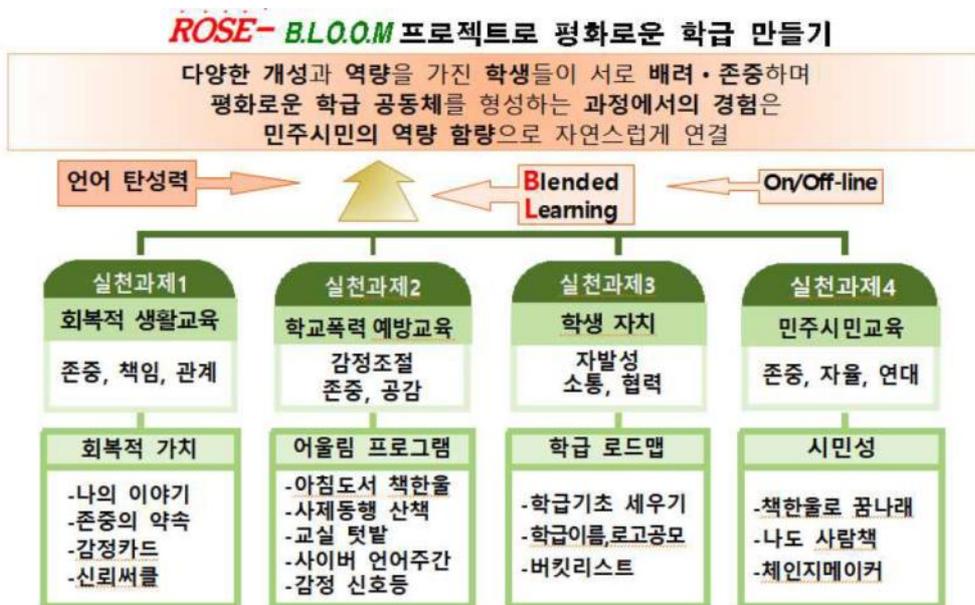
· 공감, 소통하는 회복적 가치(존중, 책임, 관계) 위에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 언어 탄성력을 활용한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회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 학생이 주도적인 자치 활동인 학급 로드맵으로 평화로운 공동체 속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 자신과 공동체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건강한 시민성으로 적극적인 참여는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다) 용어의 정리



라) 실천과제의 선정



회복적 생활교육의 가치(존중, 책임, 관계)를 위한 학생들의 학급 자치 활동은 갈등 회복의 기회가 되어 함께 공감하며 공동체 역량, 갈등 해결 역량 및 민주시민으로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예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블렌디드 러닝으로 Off-line에서 On-line으로 활동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학습 방식의 경험은 소통역량을 기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On-line 원격수업 기간의 증가는 학력 격차 외에도 게임중독, 사이버 폭력 및 범죄 등의 문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Off-On의 경계를 벗어나 공통적으로 교육하고 활동해야 할 공간으로 여겨질 필요가 있다.

마) 결론

위드 코로나인 현재까지 변화된 일상과 수업에 적응하기 위해 블렌디드 러닝부터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럼에도 공감과 소통, 존중과 배려, 책임과 협력 등의 가치와 평화로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역량은 중요하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도 학생들이 보여준 변화와 성장은 분명 희망적이기에 공감·소통하며 존중하는 생활교육의 가치와 평화로운 공동체도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나. 즐거운 수업 만들기(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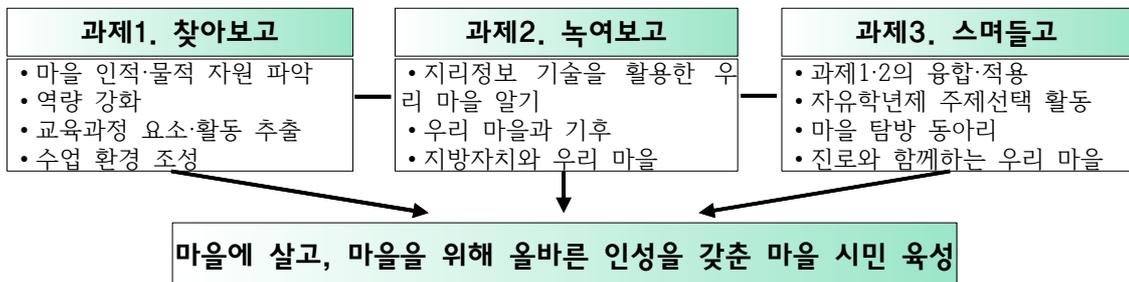
1) ‘찾아보고, 녹여보고, 스며들고(우리 마을 알기 프로젝트)

가) 연구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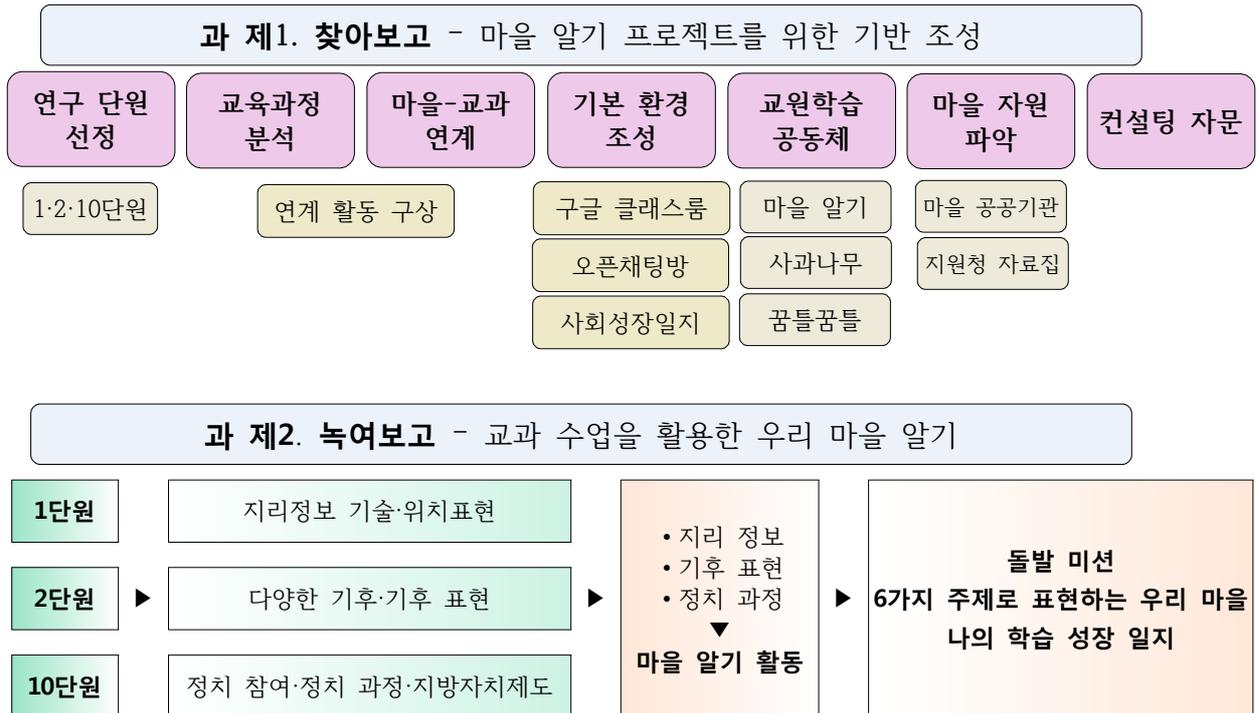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의 목적과 융합적이고 전인적인 학생 성장을 위한 다양한 학습 방법 필요 ○ 학생들이 성장하는 마을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학생과 마을 성장 필요성 대두 ○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고 차별화되는 지역 성장을 위해서는 개성 있고 발전적인 지역화가 필요하며 지역화 달성을 위해 학생과 마을의 성장이 필수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의 주제와 테마를 마을로 설정하고 마을을 통해 융합적 사고·다양한 역량 발휘 ○ 마을 이해를 통한 민주시민·세계 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 향상 ○ 수업을 통해 내 주변에서 세계로 공간적 범위를 확장 시키는 확산적 사고 유도 ○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학생들이 더 행복하고 인성적으로 풍부한 시민으로서 성장

제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등을 통한 마을 교육 진행 ○ 교과와 마을을 연계하는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의 방향으로 연구 진행
이론적 배경	<p>마을결합형교육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 등 마을과 학교 연계의 교육 ○ 마을결합형학교교육과정, 마을결합형학년교육과정, 마을결합형교과교육과정, 마을 초대프로그램형, 마을 개방 프로그램형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

나) 연구과제 선정



다) 연구과제 선정



과 제3. 스며들고 - 마을로 스며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주제선택 프로그램	서쪽 마을로 떠나는 여행 이야기	우리 마을 위치, 숫자로 보는 우리 마을 우리 마을 사람들, 고등학교 등
마을 알기 동아리 운영	걸어서 ○○ 속으로	걸어서 ○○ 주변으로, 마을 속 진로체험 과거와 현재의 우리 마을, 활기찬 우리 마을 시장 등
진로창업수업	진로 탐색, 우리 마을 직업	간이 다중지능 검사, 간이 홀랜드 검사 나의 MBTI, 가치관 경매, UD(유니버설디자인)
특강 프로그램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	우리 마을에 외국인도 살아요, 꿈씨 데이트 빌려 쓰는 지구, 더불어교실(4차산업혁명)

라) 인식 변화 및 평가

○ 마을에 대한 인식 변화

- 지도 표현 능력 및 지도 요소를 활용한 능력 향상
- 마을·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 및 시야 확대
- 마을의 주요 기관, 마을의 기능, 특징 등에 대한 이해도 향상
- 마을에 대한 지적·정서적 이해의 폭 확대

○ 검증 종합 평가

- 1차 인식 변화 : 마을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 폭 확대
- 2차 인식 변화 : 마을의 운영 원리 및 제도 인식 향상으로 통합적 마을 인식 확장
- 기능적 변화 : 언제 어디서나 지리정보 획득 및 적용
- 정서적 변화 : 마을을 ‘살아가는 곳’으로 이해 및 책임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

마) 결론 및 제언

○ 결론

- 수업 흥미도 향상 및 교육과정 목표 달성으로 융합적이고 전인적인 성장 기틀 마련, 여러 방법을 통한 수업 진행으로 다양한 능력 및 기술 향상
- 민주시민의 가치 실천 및 세계 시민으로서 자질 향상을 마을에서 시작하고 능동적인 자세 함양
- 마을에 관한 교육을 통해 학생 및 마을 발전의 초석 마련
- 현실·현장의 특성 반영 및 일반화된 교육과정 운영 가능
- 수업의 내실화, 학생 및 교사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준비

○ 제언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과-자유학년제-창체 등 교육과정의 일관성 및 연계 유지 강화
- 교육과정 해석 및 재구성을 통해 주제, 학년, 교과 등 다양한 융합적 방법 시도
- 마을결합형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차기 개발될 교육과정에 일반화된 모델 제시

○ 향후 계획

- 전시회 및 자료집 제작 등 일반화 결과 공유
- 교원학습공동체·수업 지원단 제안을 통해 다양한 교과에서 마을 연계 활동이나 프로그램 개발
- 연구 선정 단위 이외 단원에 대한 마을과 연계 가능 활동 구상 및 적용, 일체화된 교육과정 운영
- 민주시민, 세계 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2) 따뜻한 TAP을 통한 감성UP 인성UP 음악 수업

가) 연구의 필요성

- 다가오는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움
- 전통적인 지식기반 교육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요구함
- 교육 환경도 첨단 정보 기술과 무선 네트워크의 발달로 많은 변화를 가져옴
- 학생들은 웹 기반으로 학교에서 참여·공유·개방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 됨
- 교육의 본질인 인간교육, 즉 인성교육과 감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제시해야 함

나) 연구의 목적

음악 교과 내에서 표현, 감상, 생활화의 영역을 통합하고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여 감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예술을 누리는 다각도의 시각을 갖게 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예술적 체험을 통해서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개발하고 학생들 간의 협업력을 길러 고운 인성 역량 함양

다) 실천 과제

실천과제 1주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음악 이야기** -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와 음악(OST) -

스마트 기기 활용	감성UP, 인성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 미리 캔버스, 유튜브 영상 등으로 모둠별 발표 시 활용 • 텡커벨, 구글 클래스룸을 통한 자료 공유 및 URL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감상 활동으로 감성 역량 강화 • 합창 하모니를 위한 협력으로 문화적 공동체 역량 강화 • 모듬 활동을 통한 음악적 소통 역량 강화

실천과제 2주제 **내 손안에 악기와 세계 연주 여행 떠나요** - 스마트폰 악기 앱으로 연주하기-

스마트 기기 활용	감성UP, 인성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악기 앱(가락, 화음, 건반, 타악기), 유튜브 영상 등으로 발표 시 활용 • 텡커벨, 구글 클래스룸을 통한 자료 공유 및 URL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 연주로 음악적 소통 역량 강화 • 합창 하모니를 위한 협력으로 문화적 공동체 역량 강화 • 음악 감상 활동으로 감성 역량 강화

실천과제 3주제 **베토벤도 울고 갈 나의 작곡 능력을 보여줘!** 크롬 뮤직랩 '송메이커'로 음악 만들기

스마트 기기 활용	감성UP, 인성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 뮤직랩(송메이커), 피아노 앱 • 텡커벨, 구글 클래스룸을 통한 자료 공유 및 URL 전달, 과제 해결 및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곡 만들기로 음악적 창의·융합사고 역량과 음악 정보처리 역량 강화 • 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 감상을 통한 음악적 감성 역량 강화

라) 검증 결과 분석

12개 문항의 설문 조사 후 응답 분포를 확인 결과 긍정적인 분포 수 변화를 보임. 학생들이 음악 시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81.5%의 학생들이 만족해함. 감성 교육과 인성 함양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스마트 기기 활용 중 스마트 앱 악기 활용을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평가함. 이를 통해 창의적 표현 능력과 음악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었으나 창작 영역은 여전히 학생들에게 어려운 부분으로 남음.

마) 결론 및 제언

- 음악적 감성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둔 수업 주제를 선택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수업모델을 개발하였고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발표 활동으로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 시간 예술적 체험 및 표현 활동을 함으로써 창의적 표현 능력과 협업 능력을 길러 음악적 감성 역량과 공동체 역량 함양으로 인성교육에 이바지함.

- 스마트 기기 활용 창작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표현을 이루어 음악적 창의·융합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함.

-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음악 표현 활동을 스마트 기기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업 시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 및 감상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스마트 산업 및 기기의 변화 발전 속도에 발맞춰 스마트 교육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및 다양한 컨설팅 등 끊임없는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겠음.

-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수업모델 등이 아직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이 어려운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 교육의 수용적인 풍토 조성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길바라며 다양한 기회를 제공 지원이 필요함.

3) 찾아보고, 녹여보고, 스며들고(우리 마을 알기 프로젝트) ‘화(和)해(解)’ 로 함께 성장하는 나·우리·누리 국어 수업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장기화된 원격수업의 영향으로 학습 내적 동기가 수동적이며, 급격한 학습 패턴의 변화로 인한 학습 격차가 큼 → 깊이 있는 탐색과 성찰이 있는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의 내적·외적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고, 자기주도학습력 신장

·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사회·정서적 경험이 부족하며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친교 관계 형성이 어려움 → 다양한 협력학습을 구안하여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도와 교과 역량 신장

·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표현하는 힘인 국어의 실질적 사용 능력 향상 필요 → 폭넓은 국어 경험을 쌓으며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실질적 국어 능력 신장

나) 용어의 정의

함께(和) 풀어나가는(解) 수업으로, 학생들이 ‘교사-학생’간, ‘학생-학생’간 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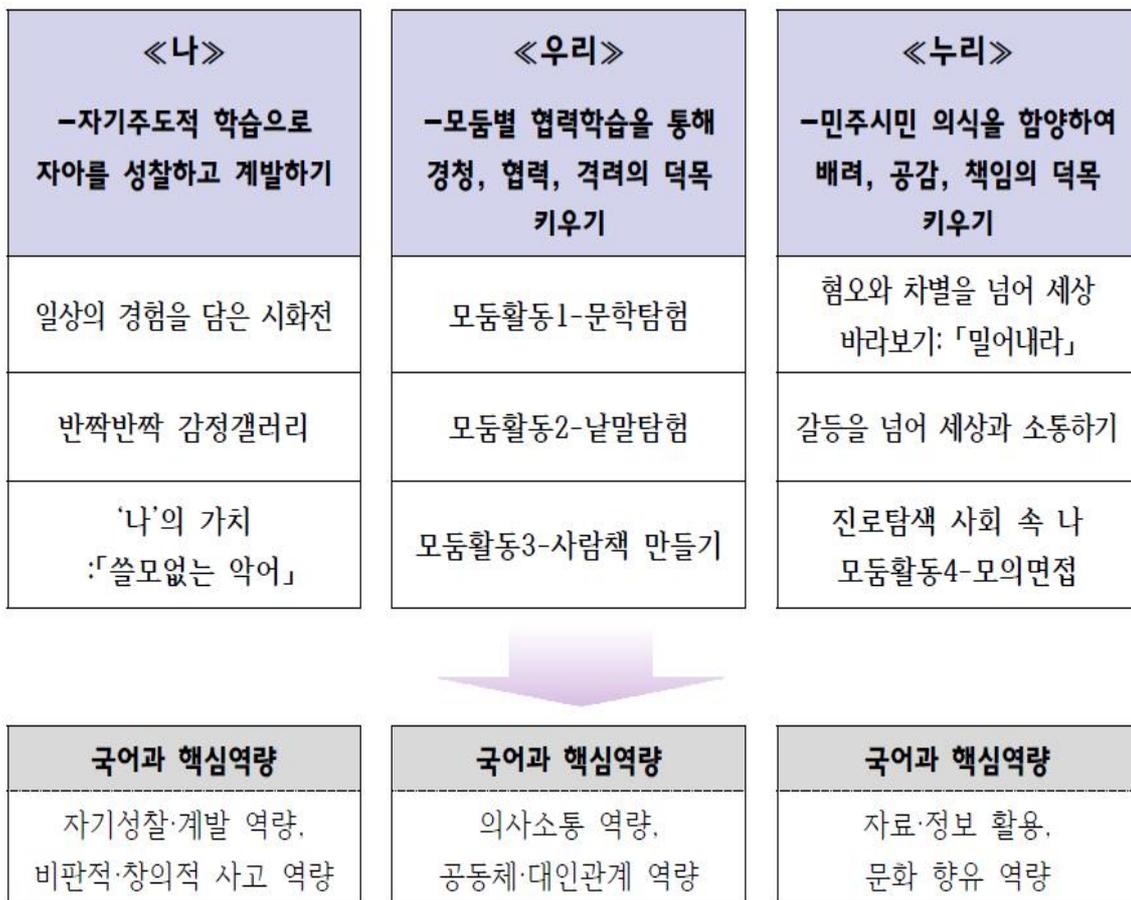
교를 쌓으며 협력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수업 활동을 통해 타인과 교류하며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국어과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나’에서 ‘주변’으로, 그리고 ‘사회’로 사고를 확장하며 국어과의 교과역량을 키운다.

○ 나: 《‘나’에 대해 알기》 활동으로 주제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과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으로 자기성찰·계발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키우기

○ 우리: 《‘나’를 둘러싼 가까운 주변(친구·가족)을 이해하기》 활동으로 친교를 쌓을 수 있도록 돕는 모둠 활동을 기획하여 교사-학생 간, 학생-학생 간의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키우기

○ 누리: 《‘나’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기》 활동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인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여, 자료·정보 활용 역량과 문화 향유 역량 키우기

다) 수업의 실행



라) 수업 마무리

-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창의 융합적 사고능력을 촉진
-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동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책임감 있게 과제를 수행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긍정적 성장을 지원
- 구체적인 피드백과 동료 평가, 자기 평가 등이 수업의 과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능력을 키움

다. 한계점 및 개선 방안 제시

위에서 제시한,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급 경영 방안과 즐거운 수업을 만들기 위한 사례들을 제대로 실현할 수만 있다면, 글 첫머리에 언급했던 아이들의 일탈행동이나 교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분명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학교 현장에서 쉽게 적용하고 실행시키기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서 느끼는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한계점

교육부를 비롯한 많은 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만한 다양한 학급 경영 방안이나 수업 사례를 끊임없이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한 자료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항상 교사의 어려움으로 언급되는 ‘과중한 행정 업무’이다. 교사의 본질은 아이들을 향해야 하고, 수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행정 업무가 아이들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동안의 많은 노력과 개선으로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이전보다 조금은 경감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재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애매한 행정업무에 시달리며 수업과 학생지도에 쓰일 열정을 빼앗기고 있다. 두 번째는, 유용한 자료가 넘쳐나는데 비해 교사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신규 교사 및 저경력 교사는 교직을 처음 시작할 때 접했던 자료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만의 수업 방식과 브랜드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 현

장에서 새로운 요소들과 변화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는 버거울 때가 많아 보인다. 이러한 고민들이 생겨났을 때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교육 환경에 적절하고 유용한 전문적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2) 개선 방안

행복한 교실을 만들고 즐거운 수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효율적으로 학교 현장에 정착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사와 교육 환경에 적합한 전문 교육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 분명 필요하지만, 그 외의 몇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비슷한 환경의 학교들끼리 연계하는 것이다. 같은 학교급에서 비슷한 학생의 구성과 인원수, 비슷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학교들이 있다. 이러한 학교들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민이나 문제점들도 비슷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들끼리 연계하여 학급 경영이나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공유한다면, 비슷한 방향성을 갖고 비슷한 목표를 갖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명 긍정적 효과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는, 학급 경영과 수업에 관한 연구대회의 활성화이다. 과거 매우 다양했던 각종 수업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연구대회가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 연구대회는 교사의 수업과 학생 지도에 대한 연구 의지를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대회의 결과가 학교 현장에 공유되어 적용된다면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력이다. 학교라는 제한된 교육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풀어나가는 노력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한다면 효과성이 매우 클 것이다. 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주변 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다면 교사는 물론, 아이들도 본인에게 익숙하고 가까운 요소를 접하면서 거부감은 줄어들고 보다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III 나아가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언제나 진행 중이다. 최근 아이들의 일탈행동과 교권을 침해하는 모습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들의 일탈행동과 교권 침해의 모습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 조치에 대한 수많은 정책과 제도 및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다. 본 교사는 이러한 노력 외에, 학교 현장의 교사의 입장에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의 학급 경영 방안과 수업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행복을 느끼고, 수업 시간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소개한 사례 또한, 매우 당연하고 이상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본 교사는 매우 공감한다. 다만 교사로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제적 방안을 소개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마저도 실천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계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제시하였다.

교육은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하나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당연하고도 분명한 것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이 모든 문제점의 근본적 해결책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탈행동, 혹은 교권 침해와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행복하고 즐겁게 생각하면서, 학교를 긍정적인 공간이라는 기억으로 남기고, 교사와 친구들과의 관계를 개선해나간다면 특별한 제도 및 정책과 함께 학교 교육 정상화에 실제적이고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토론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통한 긍정적인 학습환경 조성

임재희

(천안불무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통한 긍정적인 학습환경 조성

임재희(천안불무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I 학부모의 관점으로 본 현 교육 현실과 문제점

1. 끝없는 교권의 추락

수업권은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칠 권리이며 교사의 '교육의 지위에서 생기는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다.

수업은 학교교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활동이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보내는 주된 목적의 시간이고 그 바탕은 교사에 대한 신뢰와 열정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교사와 동급생들의 학습권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게 현실이다.

- 학생들의 폭언 욕설 수업방해 명예훼손 등
- 학생인권과 아동학대 엄격한 적용으로 인한 생활지도 어려움
- 학부모들의 폭언과 욕설

얼마 전, 모 교육청에서 교권인식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명중 7명은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현재 학생인권이 교권보다 더 보호받고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만 봐도 교권침해와 교권하락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뿐 아니라 예의없는 행동을 넘어서 빈정거림과 욕설 성희롱 sns를 통한 명예훼손까지 다양한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교권보호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찾아본 결과, 교사들은 수업 뿐 아니라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인권 내지는 아동학대 등의 대한 부분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교사들의 합당한 지도마저도 권리침해로 몰아붙이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령,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되어 말리려고 팔을 붙잡아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서 그걸 막으려고 팔을 잡아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얼마 전 3월7일 PD수첩에서 방영한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수업시간에 과도한 행동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한 지도를 하고 뒷정리 수준의 청소지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하니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2. 학교 부적응학생들의 대한 해결방안 부재

학습권은 ‘학생이 교육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진 학교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렇게 가장 학교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고 소홀히 하는 학생들에 대한 소극적 규정과 합리적 대안의 부재로 인해 선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수업참여를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의 대안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

-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에 대한 조치와 선도 미흡
- 수업거부, 등교거부 등 기본적인 수업이수가 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 미흡

학교 내에서 생활지도로 감당되지 않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등 학교 안팎에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봉사활동 시간부여, 출석정지, 강제전학 등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반성과 재발방지 효과는 거의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강제전학을 간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도 또다른 곳으로 강제전학이 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만 보아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학생들 한명의 생활지도에 에너지와 시간을 쏟게 되면 나머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 외에 수업거부 등교거부 등을 일삼는 학생들에 대한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학교밖 청소년문제로 연결되어 학교교육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3. 과중하고 편중된 교사 행정업무

교사들이 주된 업무인 수업에는 연구와 자료준비 실제 수업, 평가계획수립,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다양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수업보다는 행정적인 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게 현 교육 현실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사들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평균 5.4시간으로 OECD 평균인 2.7시간보다 두 배가 높다.

그래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교사가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들을 수십 년 전부터 추진해왔으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교사의 행정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 아이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살펴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학생 일과처리 뿐 아니라 다양한 학급 내 문제 등에 관련된 민원처리 등 다양한 방면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에 맞추어 지도를 해야 하는 시스템 또한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어려운 걸림돌이라 생각합니다.

II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1. 교권 회복이 시급하다.

-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또는 조례를 제정, 보완 강화.
- 평소 교권보호위원회 지원은 물론, 학교나 교사의 법적 분쟁 시 지원을 위해 교육청 산하기구로서 상설 법률전문부서 설치
- 학생 인성교육 강화와 학부모 교권보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제 주변 지인들 중에 교사인 분들은 요즘 교사들에게는 의무와 책임만 있고 권한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고 잘못되었을 때 책임만 묻는다면 누가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와 정책입안자들의 지지와 지원을 통해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교육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권보호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교권보호는 꼭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학생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배움의 인도자로 존중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근본이 서는 것이고 학교수업의 정상화에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교권침해로 인해 교사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고 사명감마저 잃지 않도록 의례적인 내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다행이도 지난 22일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조항'을 넣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굵고 굵을대로 상황이 악화되어야만이 교사들은 어렵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해서 열리게 되는데, 학교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 해도 제대로 된 연수도 없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갖는 무게감만큼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도 처음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때 조언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아 많은 검색과 타 학교 사례 등을 참조하고 은퇴한 교육자분들의 조언도 구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항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권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가 부족하다면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인성교육과 강화와 학부모들의 공감대형성에 힘써야 하고 교권침해 발생시에는 그 책임의 소재를 엄중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교사에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잘못이 크다고 판단되거나 극히 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객관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또한 모색하여야 합니다.

참고1) 교권보호에 대한 외국사례

일본 : 일본의 경우는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요구를 반복하는 몬스터 페런스(Monster Parents) 현상이 교사의 교육권 및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2013년에 교직원의 정신건강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예방 차원으로는 교사 자신이 스스로 정신건강을 회복하려는 셀프 케어(정신건강의 자기관리, 스트레스 해소, 정신과 상담 등), 교사의 조직적 활동에서 필요한 라인 케어(교직원 상황 파악과 조기대응, 교무분장의 적절한 실시와 소집단 라인에 의한 케어, 교장의 부교장, 교감,부장교사 등에 대한 지원, 학부모 관련 문제에 대응 및 지원), 교사의 교육활동에 제반 여건을 긍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직장환경의 정비(업무 감축과 효율화, 상담체제 활용, 정기면접 실시 등)가 있다. 특히 휴직기간 중에 복직 준비 기간을 설정하여 출근해서 직장에 익숙해지는 단계, 업무내용에 익숙해지는 단계, 복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단계 등으로 구분해 단계별 프로그램 내용과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원하고 있다.

미국 : 2011년 여러 교권사건 발생 이후, 미국 법원에서는 교사의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다른 범죄보다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교사침해 대응방안은 주와 교육구마다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스콘신 주의 경우는 교사의 교권이 침해당하면 교사단체가 교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교사단체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즉시 법원에 교사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요구한다.

영국 : 2011년 개정 법률에서는 교사의 훈육적 처벌권이 보다 강화되었다. 교사의 수업활동을 따르지 않거나 교내외 학교 활동 운영을 방해하는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근신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학교장에게 정학 및 퇴학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핀란드 : 교권침해가 발생되었을 때, 관리자, 제3의 교장, 학교 내 노조 담당자, 정신 건강 서비스, 직업안전 보건청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타 직종과 동일한 기준으로 직업상 폭력을 인정, 학교 내 여러 명의 소통 창구를 마련, 학교 담당 정신 건강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2. 학교폭력 및 위기 학생들에 대한 대책

- 위기 학생들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 구축
- 국가적 차원의 법규 규정등을 통한 지원 방법 모색.
- 청소년문제,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범사회적 프로그램 개발.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등교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밖 청소년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학업중단으로 연결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로도 발전할 소지가 많으므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대안교육등에 참여시켜 학업중단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많은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 및 지역단위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전문가 확보, 지자체·교육(지원)청 주관, 학교와 지역단위 자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학교와 지역단위 지원 기관 간의 연계에 대한 체계적인 메뉴얼 제작·배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교, 지역사회 간 역할 분담체계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개입, 가족복지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 체험활동 및 청소년활동 강화(공동체활동), 직업전문학교 등 대안학교 확충 등의 부족한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개입 책임, 교육적 판단에 대한 협조를 강제할 법적 규정, 지원을 명시하는

법규 마련, 지역사회 연계, 협력체계 구축, 전문가 배치 등을 법적 규정 등을 할 수 있는 위기 학생(청소년) 개입 및 지원을 위한 법규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 부처간 협의, 공급조정, 예산확보, 연계체계 구축 및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지원, 체계적인 매뉴얼 개발, 지역별 서비스 공급 실태 파악, 서비스 확충 모델 개발 및 지원 등을 할 학교 부적응,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중앙지원센터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방안작성자 GLOSY

참고2) (외국의 사례 등을 반영한)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모색

가. 영국

교육부와 사법부가 협조하여 ABC(Anti Bullying Campaign) 정책 실시: 괴롭힘과 관련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시설로 정서장애학교(Secondary Support Unit: 가해학생, Red Balloon: 피해학생)운영

ABC정책은 정확한 관찰, 즉각보고, 관계자간 공동 대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리가 특징

나. 미국

개별 학생의 욕구와 교사의 욕구를 고려하고 학교 운영, 학생,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가해 위험 학생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 집중적 서비스 제공

다. 일본

학교·가정·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결되는 '행동연계' 시스템 구축, 양호교사의 복수 배치나 학교카운슬러 배치,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체험 활동 지원,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철저

라. 독일

하임제도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복지시설처럼 문제의 학생들을 가정의 형태로 수용하여 보살피며 1대1지도를 통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학교스테이션 프로그램(아이들에게 감정을 다스리는 법과 규칙의 중요성,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180도 바꿔주는 효과를 봄)

요즘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대책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학교가 배움의 장보다는 일탈 행동에 대한 단속과 학교폭력

의 처리에 대해 치중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관계자만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을 끌어내야 하고 현재 학교폭력위원회나 학교의 교칙을 어겼을 경우 열리는 선도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실효성 없는 조치 보다는 반성과 더불어 책임감 있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교사는 수업이 영순위여야 한다

- 교사는 교육과 연구,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 연구부장, 교무부장, 생활안전부장등 보직교사의 수업시수 감축.
- 공문업무 간소화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의 행정업무경감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업무분리가 아닌 업무경감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행정업무는 경감 할 것이 아니라 아예 분리해야 합니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교사들은 행정업무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 대학교수들도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대학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유·초·중·고 교사들의 행정업무경감 정책을 행정업무 분리정책으로 전환해서 대학처럼 교사는 교육과 연구, 평가, 생활지도에만 전념하고 행정업무는 보직교사와 직원들이 담당하도록 분리해야 합니다.

첫째,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사이에 오가는 공문을 줄여야 합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일선 학교에 보내는 불필요한 공문을 없애야 합니다.

둘째, 별도의 지시나 문의 없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과학실무사, 방과후학교 전담사 같은 교직원을 전일제로 전환해 행정업무를 전담할 인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연구부장이나 교무부장 등 보직교사의 수업시수를 대폭 감축해 행정업무에 쏟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덧붙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업무와 인원 조정, 행정전담기구로서

학교행정실의 내실화 등도 추진해야 합니다.

여섯째, 교육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단위학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교육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교사가 다른 일로 바쁘면 학생을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학생에게 교사를 돌려주려면 획기적인 행정업무 분리 정책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출처] [지병문 칼럼] 교사 행정업무 '경감'정책은 틀렸다..."경감 아닌 분리해야 줄어"작성자 교육플러스

III 맺음말

학교 교육은 미래 학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진로를 준비하며,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고,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해서 불편하고 어렵고 당장의 정답이 없더라도 꺼내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꼭 교육부와 학교와 보호자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충남교육감이신 김지철 교육감님의 '단 한 명이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는 충남교육을 만들겠다'는 말씀과 '학교가 가장 행복한 곳이 돼 학생들의 웃음이 넘치게 하겠다'는 약속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학교는 선생님들도 행복한 곳이 되어 가르침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학교를 신뢰할 때 보호자들 또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토론이 행복한 학교교육, 학교교육 정상화의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바람으로 제언을 마칩니다.

